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 社說

### 賦役과農繁期
—洛東江砂防工事를보고—

一

洛東江沿岸 砂防工事에 잇서서 目下 秋收가 한창 急한때임에도 不拘하고 關係當局의住民에게 對한 賦役督促이 滋甚하야 關係 十一個郡은 秋收에 一大支障을 生하고 잇다고한다 大槪, 賦役制度를 말하면 어느나라를 勿論하고 昔日에 잇서서는 이것이 人民의 公法上의 重要한 負擔이엇섯스나 貨幣制度가 發達된 今日에 와서는 모든 公課에 金錢徵收를 原則으로하고 賦役은 極小範圍에 限한 例外로 此를 許할뿐이다。例하면 日本內地에 잇서서도, 市町村乃至 府縣이 (一)急迫한 境遇 又는(二) 公共的 事業을 爲하는 境遇等에 잇서서는 賦役即 勞力徵收를 行할수 잇는 旨가 府縣制, 市制, 町村制等에 規定되여 잇다。

二

如斯히 歷史的으로 보면 賦役制는 古代의 遺物이라고할수잇스나, 事業自體의 性質이 天災地變等의 急迫을 要하는 境遇라든가 또는 公共的 事業인 境遇에는 아직도 賦役制가 行하는것을 보면 農本國인 朝鮮 後進社會인 朝鮮에 賦役制가 行한다하야 이것을 根本的으로 틀린것으로 볼것은 업다。더구나 禿山을 만히가지고잇는 朝鮮에 잇서서의 砂防工事는 그것이 天災地變의 例와가티 事態急迫을 要하는것은 아닐지라도 이것을 그대로 두면 年年히 事態急迫의 境遇를 頻繁히 招致 할수잇슬 原因을 除去하자는것인즉 이것은 가장 有利한 公共的事業임이 分明한것이니까 이에 對하야 비록 賦役을 課한다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根本的으로 틀렷다고보는者가 아니다。또한 그러기에 特히 砂防工事에 對해서는 受利者에게 對한 賦役制가 法令의 條文으로 까지 規定되엿슴을 諒解한다。即, 朝鮮砂防事業令第十一條를 보면『國又는 公共團體는 朝鮮總督의 定하는 바에 依하야 砂防事業에 依하야 顯著히 利益을 受하는者로 하여금 그受하는 利益의 限度에 잇서서 砂防事業의 費用의 全部 又은 一部를 負擔케하며 又는 砂防事業施行을 爲하야 必要한 勞力或은 物件을 提供케 함을 得함이라고잇다。

三

이러케보아오면 朝鮮砂防工事에 잇서서의 受利住民에게 對한 賦役制는 이미 法令的根據가 잇고, 또한 누구의 눈으로보나 反對치 못할만한 理論及實際上의 代償的利益이 잇다。그러기때문으로 우리는 賦役制度自體가 不當하다는것은 아니다。그러나, 要는 砂防工事도 亦是, 單純히 國家的見地로만 볼것이 아니요, 또한 關係住民을 爲한 것인 以上, 住民의 全部가 農民이오, 그農民이 一年間勞苦의 結實을 거두어드리어야 될 한참 奔走多忙한 이 秋收期에 잇서서, 그들의 秋收에 큰 故障을 주는것도 不顧하고 住民에게 對하야 賦役을 서둘스러히 督促하는것이 可하냐 否하냐하는 常識問題에 잇스며, 行政問題에 잇다。勿論農時는 農業國 行政의 ……도 업는 鐵則이다。이 鐵則을 버서난 行政은 다른 社會에는 適할는지 몰라도 農業國에는 通할수업는것이다。따라서 우리는 이 一點을 드리서 喜로 砂防工事에 잇서서뿐만아니라, 모든賦課의 賦役에 잇서서 關係當局者와 및 監督官廳의 一考를 促하는바이다。

# 北中五省中心으로日中關係微妙化

## 失地回復決意코 蔣氏共軍과秘約?
### 共産黨西北委員張主席과協定
### 雙方密約下戰鬪繼續

【新京二十六日發電通】蔣介石氏가 共産黨과 妥協하야 北中失地를 回復하려는政策은 漸次明瞭하게되는中인데 最近某機關에 達한 情報에依하면 蔣介石氏는 張學良氏로하여금 最近 中國共産黨西北委員 主席張國燾와如左한 協定을行하엿다

一、國民黨部는 共軍의 進擊을支持하고 雙方이密約下에 戰鬪를繼續함

二、日本軍의 河北進出에對하야 國民黨軍과 共軍은 共同防衛를함

三、西北共産黨을 北中五省에 集中케하고 赤化宣傳은 暫時休止케함

이 結果로보면 蔣氏는 共産軍을 北中에 跳躍케하야 이것을口實로 中央軍을 北上케하야써 北中狀態回復을 樹立할것이아닌가 觀測된다 (寫眞은 蔣介石氏)

## 藍衣社員全部逮捕 河北省追放要求?
### 北中政治機構變革은不可避乎
### 日本軍當局態度强硬

【北平二十六日發聯合】農民自治運動의 擴大, 人心不安에 乘하야 國民黨部藍衣社等은 再次跳梁跋扈를 開始하야 非戰區의 治安이 重大脅威에 直面하게되엇다 中國駐屯軍司令部에서는 情勢를 憂慮하야 가까운 將來에 河北省政府主席商震氏에게 對하야 爆彈的通告를 投擲할것이 아닌가 觀測되는데 右通告에서는 軍當局은 國民黨員과 藍衣社員의 撤收를 要求하고 特히 左의 事實을 指摘할것이 아닌가 보인다

一、國民黨員과 藍衣社員의 跳梁은 非戰區의 治安을 脅威하는바 不少하다 如斯한 事態를 誘致한 中國軍政當局의 不誠意는 明白히 梅津司令官과 何應欽氏와의사이에 成立된 協定을 蹂躪하는것이다

二、軍當局은 非戰區內의 治安確保의 見地에서 河北省各縣政府機關의 職員으로 公然 潛入한 國民黨員全部와 執拗하게 地下工作을 繼續中인 藍衣社員全部의 逮捕와 河北省으로부터의 追放을 要求한다

右通告가 發動될 境遇에 河北省政府主席 商震氏가 一步 取扱을 그릇하면 同氏의 辭職은 不可避일것으로 情勢 如何로는 北中政治機構變革도, 또한 避키 難하다고 豫想되어 農民自治運動은 지금 北中政府機構의 根底를 動搖하게되엿다

## 北中行政機構改革案을提示?

【北平二十六日發聯合】日本軍當局은 農民自治運動으로부터 延하야 河北全省의 混亂을 誘致할 情勢를 憂慮하야 行政機構의 根本的改革案을 提示하야 中國軍政當局의 考慮를要求하게될것으로 보이나다 軍에서는 灤楡、薊密의兩區를 河北省으로부터 獨立시켜 特別區를 設置할것을希望하고잇다고보인다

## 市中步哨 通行人身體檢査

【天津二十六日發聯合】天津公安局은 二十五日夜來 市中에 步哨를세워 모다 小銃을 所持하고 保安隊도 全部 出動하야 各自彈藥二百發 手留彈二發式을가지고 三十二軍特務營도 出動하야 半數는 便衣隊가되어 金鋼橋 東馬路及特別區等의 要所에서는 通行人의 身體檢査를하는等 異常한 緊張을 示하고잇다

## 天津總領事會議

【天津二十五日發電通】天津總領事館에서는 二十五日 午後八時三十分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天津總領事會議는 午後二時부터開催 먼저 守屋第一課長으로부터 對中方針의 運用에關한 中央의意向을 傳達하고 또 이것은 陸海軍及 外務省과의 間에 緊密한 聯絡을 가지고 잇는것이며 各總領事로부터 南京政府及 各地方政權의 動向 其他의 情勢에 對하야 各其說明하고 意見을 交換하고 六時半에 散會하엿다 그리고 二十六日은 午前九時에 會合할터이다

## 宋氏의援助拒絶로 自治運動遂挫折
### 局部問題로政治的解決이可能
### 事實上發展性을喪失

【北平二十六日發電通】農民自治運動首腦部의 唯一한 希望은 宋哲元氏의 蹶起로서 宋氏가 引率한 第二十九軍의 蹶氏은 自治運動을 支持하면 即時 自治政權을 樹立할수잇슬것이라고 河北省內 各縣과 連絡하야 繼續自治의 烽火를 擧하야 混亂에 陷케하려고 하엿던바 宋哲元氏가 大勢를 看取하고 時期尙早라고 自治派의 要望을 拒否하엿기때문에 問題는 다만 目下 城門을 閉鎖하고 外界와의 交通을 斷絶하야 獨立狀態에 잇는 香河縣城을 如何히 處置할것인가하는 一點만이되어 逃走縣長의 留任, 租稅輕減等으로 解決交涉이 開始될 豫測이서게되엿다

民政廳長陳氏를 全責任者에 推戴한 一方現河北省政府主席商震氏는 就任以來 何等治績이 업고 中央의 觀念을 바드며도 平津衛戍司令 宋哲元氏의 사이도 圓滿치못한 實情에잇슴으로此際 차라리 宋哲元氏를起用하야 農民運動後의 新事態에對하야 河北省全局의 衝에 當케하리라고하는見解가 有力하다

【北平廿六日發電通】香河縣城을 占領한 農民團은 再三 宋哲元氏에게 援助를 求하야 二十九軍의 主力部隊를 動員하야 商震部隊를 驅逐하고 一擧에 華北自治政權樹立을 要請하엿스나 宋哲元氏는 아직 그時期가 아니라고 이를 拒否하야 自治運動에 加擔치안는 態度를 明示하엿다 따라서 香河縣農民自治運動은 實質的으로 發展性을失하야 一局部問題로 政治的解決만을 할狀態에 急轉하엿다

【北平二十六日發電通】香河事件解決에關하야 天津軍當局과 交涉中인 河北省政府主席 商震氏는 極力 事態의 擴大를 避하고 香河의 農民 運動은 勿論停戰協定地域內의 地點에서 民衆運動이 勃發한때에도 武力彈壓을 하지안코 日本側과의 協力으로 事態의 圓滿收拾을 하려고하는同時에 各縣當局에 擾亂發生防止의 嚴重命令을 發하고잇는데 今後 田賦其他의 減稅運動이 各地에 波及하더라도 暴動化되지는 안흘모양으로 省當局과 南京政府와의 折衝으로 問題는 依然 河北省財政의 改善에 對하야 進展의 方向을 돌릴것으로 보인다

## 一擧獨立政權樹立 秘密結社遂暴露
### 河北自治運動擴大機運에乘하야
### 人民自治聯盟策動

【北平二十六日電通】河北自治運動이 擴大될 機運에 乘機하야 一擧北中에自治政權을 樹立하려하는 秘密結社가 平津地方에 潛行하야 이미 中華民國人民自治聯盟이라는 自治聯盟組織規則等을 決定하고 印刷物을 關係方面에 密送한 事實이잇는바 各種流言과함께 中國側一部의 裏面的策動도 漸次 露骨化하게되엿다

## 各地農民運動에 漸次統一性出現

【天津二十六日發聯合】河北에잇서 農民自治運動은 每日이곳가 各縣으로 擴延되여 漸次全省에 浸透할 形勢를 보이고잇다 自治運動의 進展과함께 各縣間의 連絡工作은 活潑하야『河北民의河北』을 目標로運動은 漸次 統一的樣式을 가추게되엿다 自治運動의 形勢는 今後豫測을 不許하나 政治的動向으로 看取되는것을 要約하면 左와如하다

一、河北省으로부터 國民黨藍衣社系의勢力을 一掃할

一、非戰地區의 行政機構를 强化함

一、蘇密特察專員蘇玉琦氏는 아직就任을 不肯하야 非戰區의 西半은 空位狀態에잇는데 鑑하야 兩戰區를 糾合하야 特別區를 設置하고 深中特別專

## 獨立政權樹立의 發展可能性稀薄
### ◇高橋武官意見報告

【北平二十六日發電通】高橋北平武官은 中央部로부터 香河事件의 發展性에 關하야 意見을 求한데 對하야 諸般情勢로서 推斷하야 獨立政權問題로 發展될 可能性이 업다라고 二十五日 中央部에 報告하엿다

## 蔣介石氏調査報告를 商主席에電命

【北平二十六日發聯合】蔣介石氏는 農民自治運動을 極度로 重大視하고 二十六日 鄕里奉化로부터 河北省政府主席商震氏에게 電報로써 如左히 命令하엿다 香河事件은 河北全省의 治安에 影響하는바 甚大하다 事件의 內容背景等을 調査하야早速報告하다 또平津衛戍司令宋哲元氏와 北平市長袁良氏에게도 따로 電報로서 農民運動의 共同彈壓을 嚴命해왓다

## 蔣大使藏相과懇談

【東京電話電通】駐日中國大使蔣作賓氏는 二十六日午前十時 永田町官邸에 高橋藏相을 訪問하고 近近 歸國하는데 對하야人事를 述하고 또 中國의 財政問題 及日中經濟提携의 問題等에 對하야 藏相의 意見을 聽取하고 여러가지로 懇談한바잇섯다

## 北平에謠言百出 特別戒嚴令宣布

【北平二十六日發聯合】農民自治運動의 重大化以來 北平城內에는 謠言이 百出하야 人心의動搖를 生하게되엿스므로 平津衛戍司令部에서는 드디어 二十六日夜 特別戒嚴令을 宣布하게되엿다

## 綏遠省防共對策協議

【北平二十六日發聯合】綏遠省主席傅作儀氏는 綏遠省政府에서二十五日부터 五日間에亘하야 全省會議를 開催하고 防共對策에對하야 協議中이든바 綏遠 陝西兩省境에는現在匪首로부터 王靖國軍約一萬이 派遣되어잇스나 冬季에入하야 軍輪品輸送이去益困難하게됨으로 此等對策이 愼重考慮되리라고觀測되는데 施하야 萬一에 備하고잇다

## 趙香河縣長 北平서發狂入院

【北平二十六日發聯合】香河縣長趙鍾朴氏는 農民運動이 發生되는同時에 縣城으로부터 脫出하야 北平에 逃入하엿던바 同事件의 刺戟으로 精神에 異狀을 呈하야 二十六日 發狂狀態로入院하엿다

## 永淸縣民千餘名 商震軍과對峙!
### 形勢는漸次險惡化

【天津二十六日發電通】永淸縣의 民衆約一千名은 二十六日午後五時縣公署에 租稅減免、自治實施의 運動을 부르짓고 殺到하엿는데 商震軍때문에 阻止되어民衆代表三名이 監禁되엇스므로 民衆團은 激昂하야 商門을 끼고 商震軍과 對峙하야 形勢가 險惡하다

## 商震氏 多田司令官會見

【天津二十六日發聯合】農民自治運動의 擴大와 藍衣社等의 暗躍으로 北中時局은 錯綜하야 漸次事態가 重大化하려는이때에 河北省政府主席商震氏는 一昨夜 來津劉公安局長及 保安司令部幹部를 招集하고 緊急會議를 開하고 善後策을 協議한結果 二十日 多田中國駐屯軍司令官에 會見을 要請해왓스므로 多田司令官도이것을 應諾하엿다 따라서 商震氏는 二十六日午後一時 官邸에 多田司令官을 訪問하고 重要會談을 行하엿다

## 永淸、靜海兩縣城서 民衆軍隊와衝突

【天津二十六日發聯合】永淸縣에서는 二十六日午前七時 民衆約一千名이 縣政府에 請願에赴하엿던바 이미到着한 商震軍一個聯대문에 阻止되어 目的을 達치 못하고 아직城門外에서對峙中인데民衆代表三名은 和平交涉에 赴하야 그대로 監禁되엇다 그리고 靜海縣의 民衆運動은 一時 鎭靜된것가티 보이드니 二十五日 再次 數百名의 民衆이 入城하려고하야 保安隊와 衝突하야 지금 對峙中이다

## 國民黨員의退去要求

【北平二十六日發聯合】北中治安攪亂에 關하야 日本軍 當局은 가까운將來에는 河北省으로부터 一切의 國民黨員及 藍衣社員의 退去를 要求하리라고 觀測되다

## 高橋武官 宋氏와重要會談

【北平二十六日發聯合】高橋北平駐在武官은 二十六日午前 衛戍司令宋哲元氏를 訪問하고 前後一時間半동안 重要會談을 遂하엿다

## 天津公安局 自治運動擴大로 特別警戒

【天津二十六日發電通】民衆自治運動은 益益 擴大되어 드디어 天津에도 波及되려고하야 形勢는 急迫하야 各方面의 代表者는 極秘裡에 協議를 進行中이므로 公安局에서는 特別警戒를實施

## 日中兩國共同 赤化防止提議?
### 萬若國民政府不應할時엔絶緣乎
### 關東軍重大態度決定

【新京二十六日發電通至急報】關東軍은 北中第二段의 肅正工作의 積極的 展開를 圖하기로되는데, 北中事變後 急迫한 一事態로 駐中軍部의 蹶起를 促하고잇는 赤化防衛策에 關해서는 大連會議의 決定에 基하야蔣介石氏와南京政府와 協定하야 蘇聯의赤化運動에 對하야 日滿中共同 防衛策을 講究할 必要가 잇다는見地에서 近近 中國側에 對하야 『日本이 今後 講究할 蘇聯赤化運動防止는 日滿中共同의利害에 基한것이므로 共産黨防衛에 關하야 日中間에 어떠한 協定을 締結할 必要가잇다』는 要求를 提出할터이다 그리고 右에 對하야 中國側이 從來와가튼 欺瞞的態度를 取할境遇에는 日本은 正常防衛의 立場에서 南京政府와 絶緣하고 赤化防止의 斷乎한 態度를 取할수밖게 업다는 强硬態度를 決定하엿다고 觀測된다

## 和協交涉有望으로 制裁一時延期?
### 羅馬外交團의觀測

【羅馬廿五日發電通】羅馬駐在外交團方面에서는 二十五日 英佛和協交涉이 順調로 繼續되여 具體的折衝에 入할 可能이 보이게되엿슴으로 聯盟의 制裁行爲는 右經過에 鑑하야 或은 一時延期되리라는 觀測을 나리고 잇는바 英國總選擧가 終了할十一月十四日까지는 伊太利에 새로운 大打擊을與하는 手段은避하리라고 觀測된다

## 에國分割說과 皇帝의決意

【아디스아베바二十五日發聯合】佛伊兩國政府間에 에디오피아帝國分割工作이 着着進捗되여잇다고 傳하는데 에디오피아皇帝하일·셀라시에一世는 絶對로그러한 屈辱的要求에는 應諾하지안흘決意이라고 解釋되는데 二十五日 左와如히 述하엿다 英佛伊三國間의 和協工作에對하야 余는 아직 何等의提案도 接受하지못하엿다 伊太利政府에 티그레 오가덴兩州를割讓하고 하랄州에 伊太利政府의 軍政을布한다는等의 亂暴한 提案은 絶對로 受諾할수업다 講和의 先決要件은 伊太利軍의 撤收이다 그리고에 디오피아 政府當局은 南北戰線에 亘하야 아직 敗北을認定치안코 特히 各國政府가武器輸出禁止를 解除한結果 에디오피아軍은 斷然優勢한 立場에잇다 못솔리니首相이 講和條件을 提出한것은 우수운 일이다 에디오피아皇帝가 곳 伊太利降伏의 條件을 提示할 立場에잇다고 豪語하고잇는 現狀이다 萬一 하일·셀라시에一世가 오가덴·티그레兩州割讓에 應諾하면 國論이 沸騰하야 에디오피아皇帝는 沒落할수밖게 업스리라고 보이므로 內政上 見地에서도 容易히 屈辱的條件을 受諾치안흐리라고 觀測된다

## 亞爾然丁政府 武器輸出禁止發令

【부에노스아이레스二十五日發聯合】亞爾然丁政府는 二十五日 伊太利本國과 屬領에 對한武器軍需品一切의 輸出을 禁止한다는 命令을發令하엿다

## 標金市場混亂에 國府兌換停止?

【上海二十六日發電通】上海爲替와 標金市場의 混亂에 對하야 國民政府는 어떠한 對策을 實施하지안코 다만 傍觀態度를 取하고잇슬뿐아니라 中央銀行을 爲始하야 中國、交通의 三政府系銀行은 外國銀行과의 約束을 破壞하고 盛히 外貨로 向하고잇는 事實이 잇는데 對하야 外國銀行도 이미 今日來『모랄써포드』를 防止하는 態度를 取하야 一部外銀側은 盛히 現金을 買集하야 探算에 有利한 金輸出을 開始하야 『모랄써포드』가 事實上 廢棄된 倫敦銀은 二十九片十六分之五로 平衡制 其他의 『최지』를 免除하더라도 十片의 輸出利益이 잇기 때문에 모랄써포드를 放棄하면 中國의 外銀은 減少되고 通化不安의 增大는 必至의 狀態에 잇스므로 國民政府도 드디어 兌換停止를 할밧게업시될것이 아닌가 憂慮된다 그리고 目前 銀의 崩落에 依한 圓爲替, 圓元파운드를 示現하고 또 元은 圓을 下廻하야 逆레이트가 出現할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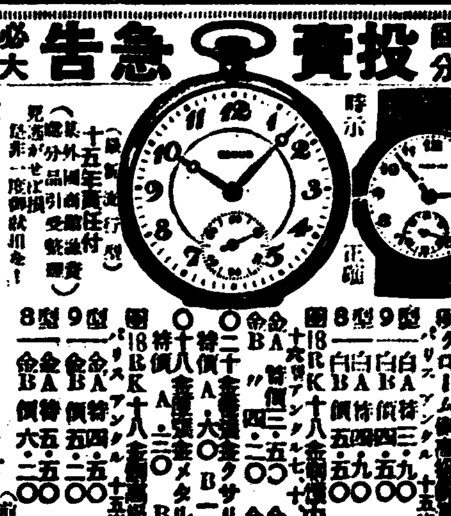
## 英佛兵營內에 赤化宣傳文發見

【天津二十六日發聯合】數日前天津駐屯 英國兵營과 佛國兵營內에 內容同一의 赤化宣傳文書가 發見되어 佛國駐屯軍에서는 事態를 重大視하고 軍法會議를 開催한結果 一個中隊의 兵士를 歸國케하엿다 右宣傳文은 巧妙한 手段으로 단인데 ……에 오는 外國軍人을 巧妙히 赤化시켜서 兵營의 武器를 奪取하려고 企圖한 모양이어서 關係當局에서는 事態를 重大視하고잇다

## 比島警備隊增加說
### 아將軍不否定

【마닐라二十五日發聯合】米國陸軍參謀總長맥아서將軍은 二十六日 마닐라에 到着하엿다 將軍은 比島聯邦의 獨立後의 國防計畫을 樹立할 方針으로 警備隊를 現在의 六千名으로부터 一躍 二萬名에 增加할 意向이라는 報道가 流布되엇는데 아직 具體案이 되지 아니한 모양으로 將軍은 上陸後 如左히 말하엿다 比島를 財政的으로 破綻시킬과 如한 計畫은 全然 가지지 아니하엿다

第二十回分讓會 投賣急告 必死大奉仕的



瑞西 時示 正確
十五年責任付
東京市中野局私書函第十八號 鈴木合名會社時計部 振替東京九九八六番

腫氣 靑山膏 에옴 히벅고

各種信託 迅速有利 低利貸出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九番地
朝鮮信託株式會社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 (營業案內贈呈)

大阪着名問屋案內
セーター、ジャムバースキー服一式
外流線型新製品豐富
ツキギ運動用品舖
大阪市北區老松町一丁目 支店 東京市神田區神保町
良品仕入은貴店의信用 特約店에應함(商報送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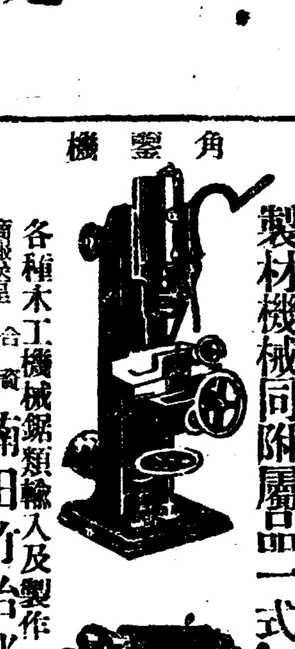
羅紗洋服製造卸
既製品豐富 (見本及カタログ送呈)
駒明商店 大阪市東區谷町二丁目一九

人絹端切各種卸
◎モスリン、綿ネル、絹ポプリン、本セル金巾、四綫、朱子、人絹
新規小賣開業者에게는懇切히指導합니다
大阪市南區瓦屋橋東詰 大阪南局第二三三號函
(商報送呈) 見本은實費五十錢(切手)
津村合資會社 電話南二一四八 二一八九番 振替大阪二三六八三番

織物雜貨 仕入案內送呈
株式會社 前田光商店 大阪市本町四丁目

コール天各種 オーバ製品 防寒服一式
大阪東局私書函第九五號 (商店에限하야商報及見本送呈)
二葉屋商店 大阪東區南農人町一

製材機械同附屬品一式 鉋機 角鑿機



各種木工機械鋸類輸入及製作 商報送呈
合資會社 楠田竹治郎商店 大阪西區本田町通一

洋服界의合理
◇洋服店開業廣告
◎弊店의特色六種
寶岩洋服店

# 專門은延專獨舞臺 宿敵普專에雪憤

## 諸種目王座總決算한 綜合競技第五日

### 中東籠球에 養正庭球에 普成씨름에各優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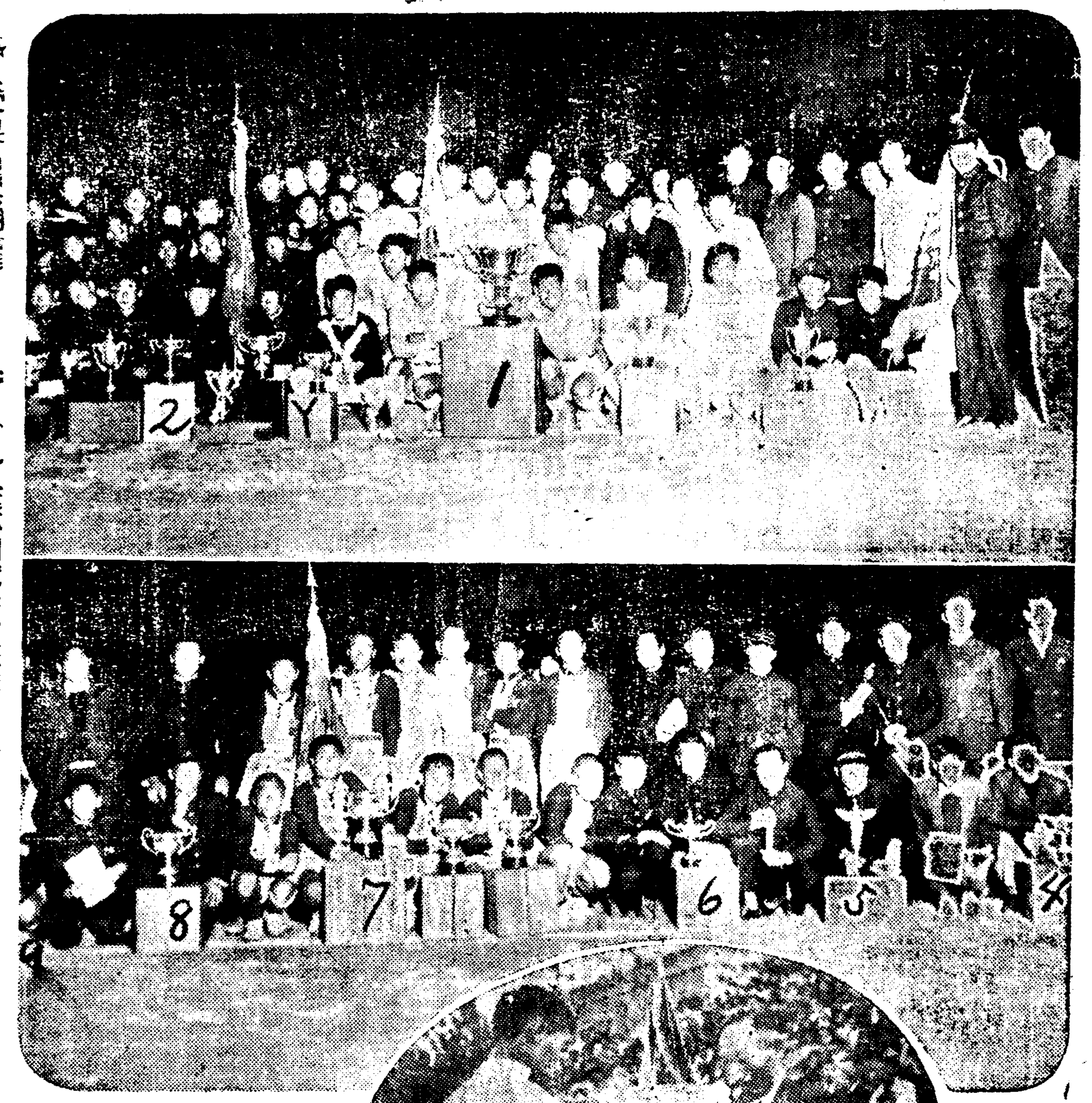
### 淸津、高麗、蹴、籠球에制覇

조선의"올림피아ー드"조선체육회주최 종합경기대회의 제오일! 이날의오후푸로그람은 지난나흘동안에 예선에예선을거듭하야 추려진 뒤를니어 각종목의 최후왕좌를 겨누고 모혀든 강호(强豪)들의 최후의일전으로 결승전만남게되어 려일불두고 백열되든 팬들의 인끼는 이날로서 그절정에미처서 훈련원두(訓鍊院頭)는 그야말로 라만한·스포ー츠의비초로칠해노앗다 이른은 운동장을 둘러싼 대관중은 저마큼 흥분과감격에부바치어 장내장외는 긴장한공기만이 용소슴치고 잇섯슬뿐이엿다

이날 푸로그람에 백미(白眉)로써 조선의 조경전(早慶戰)이요 『캠푸팃취』대『악스포ー드』전인 연전(延專)대보전(普專)의 축구결승전은 량쪽스탠드에진친 응원단으로부터 우렁차게 나오는 환호성과 류랑한뻔드에마춘 박수소래와함께 열리여장래는선수야물론 관중의 최후한사람까지도 연전이냐?보전이냐?두편으로 갈리게되여 이상한 흥분속에 쌔임은 진행되엿다 개전벽두부터 문짜그대로 룡호상박(龍虎相搏)처장(悽壯)한 백병전(白兵戰)을 연출하드니 전반전에 보전이한골을「리드」하자 후반에드러가 연전선수들의 미우(眉宇)에는일종 형용할수업는 결의의비치 떠돌며 핍격(逼擊)또 박격? 승승장구(乘勝長驅)의세로 연다라득점하야 결국삼대일로 연전군개가를 놉히부르니 응원단으로부터는 오색찬란한 감격의 테프가 연전의일레븐의 두상에마치환호와함께떠러젓다 이리하야 보전에게 사변간을 내려지고 와신상담(臥薪嘗膽)이날을 기두리든 그들사이에는 설분의 환희가 폭발되매 영예스러운 우승배 본사 사장배(本社社長盃)를 획득하엿다

이밧게 롱구(籠球)와 정구(庭球)에도 강호 보전(普專)과 막상막하의 열전을 게속하다가 연전이 이겨서 이날이야말로연전의 독무대를 이루엇다

그리고 롱구부에 잇서서 중학부에는 중동(中東)이 청학(靑學)을, 고려(高麗)가 동우(同友)를 이겨서 각히 패권을 누리게되고 씨름부에는 보성고보(普成高普)군이 강호들을 물리치고씨름왕국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나타내이엿고 일반축구부에는 관북의 강호 청진(淸津)군이 철도팀을 격파하고 우승하엿다 이리하야 대회총무위원장 박승빈(朴勝彬)씨로부터 제오일까지의 우승교와 밋입상자에게 우승배와 우승긔를 수여하엿는바 이로써 금이십칠일에 해할 력기(力技)、검도(劍道)、야구(野球)、의 세종목을 남길뿐으로 대회의 중심경기는 원만히맛치엿는데 이날에잇서서 대서특필할것은 각종목결승전을통하야 종시일관으로 숭고한스포ー츠정신을 발휘한 선수들의아름다운 태도와 여기에열광하고도 오히려도를넘지아니하야 드듸여 유종의미를 가저오게한 응원단과관중의『콤비네이슌』에의하야 이번대회는 우리체육사상에 특필할모범적기록을 남겻슴은 새삼스럽게 일반을감격케하엿다



★榮譽의覇權 獲得한諸팀★

(1)延專의蹴、籠、庭球部、(Y)養正陸上、庭球部(2)中東籠球部(3)高麗籠球團(4)普成高普씨름部(5)徽文高普蹴球部(6)中東柔道部(7)淸津蹴球團

(本社社長盃밧는延專蹴球主將)

## 蹴球

### ◇專門部決勝 延專3 普專1

【前0…1】【後3…0】

【專門部蹴球決勝】우리學園스포ー츠界의 最高峰!昨年의覇者普專對延專의決戰은 二十六日午後二時十九分부터 徐丙義氏審判아래 延專킥어프로 開始되엿다

【前半】緊張과 興奮속에열린此一戰은 兩軍무거운責任感을 늣기인지 上氣한 빗이 濃厚하야 得點할機會조차 업드니 開戰三分에 延專의FW 密集攻擊으로 普專陣營을 猛襲하야 好機를마첫스나 凡蹴으로 無爲 十分에 延專LF鄭君의 킥에미끄러지면서 失手하야 『핸드뽈』하니 普專패날티킥을利하야 CH金容植의善蹴으로 幸先의一點을너허 意氣자못놉드니 이에延專軍大擧逆襲하야 十四分에R1李惠善의패스를 CF金成玕受하엿스나 門柱를넘어 機逸 이로부터 一進一退의 白兵戰을 演하야 兩便스탠드에陣친兩軍應援團으로 하여금 熱狂케하며 勝敗의歸趨를 헤아리기어렵드니 前半은 一對零普專리ー드한채 타임업되다

【後半】一點을 빼앗긴 延專軍 得意의速攻으로 普專陣營에 突入하야 五分에 CH의 패스를 CF 金成玕바더 受하야 一點을 挽回하자 氣勢를 올린 延專軍 九分에 RW의 센터ー패스를 CF바더 受하니 二對一延專이 리ー드、이로부터 形勢逆轉하야 十七分에 延專 LW의 패스를 L1金寅碩受하야 또 一點을 加하니 三對一 延專依然리ー드、不運을 늣기든 普專軍 總攻擊에 나아갓스나 結局 三對一로 普專惜敗하니 延專軍 新普覇四年만에 半島學生蹴球界의 王座를 占하엿다(게임九十分間)

| 【普專】 | 文二義 | 吳在烈 | 高揭鎭 | 裵宗鎬 | 朴孝淸 | 金炳福 | 金容植 | 李鍚漢 | 洪條永 | 朴李碩 | 李相再 |
|---|---|---|---|---|---|---|---|---|---|---|---|
| | LW | L1 | CF | R1 | RW | LH | CH | RH | LF | RF | GK |

| 【延專】 | 韓甲鎬 | 金寅碩 | 金成玕 | 韋惠德 | 金景漢 | 丁海敦 | 李裕灐 | 李奉鎬 | 鄭龍洙 | 洪淳恩 | 金忠鉉 |
|---|---|---|---|---|---|---|---|---|---|---|---|
| | LW | L1 | CF | R1 | RW | LH | CH | RH | LF | RF | GK |

| 【普專】前 | 後 | 計 | | 【延專】前 | 後 | 計 |
|---|---|---|---|---|---|---|
| 1 | 0 | 1 | 得點 | 0 | 3 | 3 |
| 7 | 4 | 11 | 門蹴 | 4 | 8 | 12 |
| 5 | 2 | 7 | 隅蹴 | 2 | 1 | 3 |
| 9 | 3 | 12 | 自由 | 11 | 1 | 12 |
| 1 | 0 | 1 | 罰蹴 | 0 | 0 | 0 |

### ◇一般部決勝 淸洋3 鐵道0

【前0…0】【後3…0】

【一般部決勝】淸津對龍鐵戰은 同午後四時八分부터 徐丙義氏審判아래 淸津킥어프로 開始한바 前半은兩軍得點업시 莫上莫下의勢를보이드니 後半二十五分에 淸津LW의패스를CF姜泳弼의헤딩으로 一點을 너흐니 이로부터 淸津軍猛威를 發揮하야 三十分과 三十四分에L1朴英의受으로連다라得點하니 結局三對零으로 遠來의淸津軍優勝하엿다(게임七十分間)

| 【淸津】 | 林日鎭 | 朴永浩 | 姜甲輔 | 韓君鎔 | 金學奉 | 張翔南 | 崔學係 | 方昌福 | 韓虎峰 | 張吉鉉 |
|---|---|---|---|---|---|---|---|---|---|---|
| | LW | L1 | CF | R1 | RW | LH | CH | RH | LF | RF |

| 【鐵道】 | 金昭仁 | 李成周 | 崔德在 | 張熙亨 | 李甲種 | 朴任鎬 | 金應淳 | 梁學吉 | 全有亮 | 金龍圭 | 咸羽慶 |
|---|---|---|---|---|---|---|---|---|---|---|---|
| | LW | L1 | CF | R1 | RW | LH | CH | RH | LF | RF | GK |

| 【淸津】前 | 後 | 計 | | 【鐵道】前 | 後 | 計 |
|---|---|---|---|---|---|---|
| 0 | 3 | 3 | 得點 | 0 | 0 | 0 |
| 3 | 4 | 7 | 門蹴 | 9 | 5 | 14 |
| 5 | 1 | 6 | 隅蹴 | 0 | 0 | 0 |
| 2 | 2 | 4 | 自由 | 1 | 2 | 3 |

## 籠球

### ◇專門部決勝 延專40 (28 12 … 23 9) 32普專

【專門部籠球決勝】普專對延專籠球戰은 同日午後三時五十一分부터 李惠澤 崔潤夏兩氏審判下에 開始되여 結局四十對三十二로 延專軍이優勝하엿다

| 反 | 前 | 後 | 【普專】 | | 【延專】 | 前 | 後 | 反 |
|---|---|---|---|---|---|---|---|---|
| 1 | 2 | 10 | 崔海龍 | F | 金應鎬 | 0 | 6 | 3 |
| 4 | 4 | 2 | 申光浩 | | 洪文吉 | 2 | 2 | 1 |
| 0 | 0 | 2 | 洪憲錫 | | | | | |
| 1 | 2 | 3 | 金致雲 | C | 廉殷鉉 | 3 | 6 | 1 |
| 0 | 1 | 6 | 辛在燾 | G | 張利鎭 | 5 | 12 | 1 |
| 1 | 0 | 0 | 李文鎬 | | 郭斌 | 0 | 2 | 3 |
| | | | | | 李萬傑 | 2 | 0 | 0 |
| 7 | 9 | 23 | | | | 12 | 28 | 9 |

### ◇中學部決勝 中東57 (36 21 … 10 9) 19靑學

【中學部籠球決勝】中東對靑學籠球戰은 二十六日午後二時二十八分부터 安台慶 金化泳兩氏審判下에 開戰되여 五十七對十九로 中東軍優勝하엿다

| 反 | 前 | 後 | 【中東】 | | 【靑學】 | 前 | 後 | 反 |
|---|---|---|---|---|---|---|---|---|
| 2 | 15 | 9 | 李容馥 | F | 兪仁濬 | 3 | 1 | 4 |
| 1 | 2 | 12 | 李龍寬 | | 徐廷釗 | 2 | 1 | 2 |
| 1 | 2 | 10 | 徐仁權 | C | 韓東殷 | 2 | 0 | 2 |
| | | | | | 李應斌 | 0 | 5 | 0 |
| 1 | 0 | 2 | 李河從 | G | 金俊泰 | 0 | 0 | 3 |
| 2 | 2 | 3 | 朴東湊 | | 李泰燮 | 2 | 3 | 3 |
| 7 | 21 | 36 | | | | 9 | 10 | 14 |

### ◇一般部決勝 高麗49 (20 29 … 20 20) 40同友

【一般部籠球決勝】高麗俱樂部對同友俱樂部籠球戰은 二十六日午後一時三十六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李惠澤 林東洙兩氏審判으로 開始된바 結局四十九對四十으로 高麗軍優勝하엿다

| 反 | 前 | 後 | 【高麗】 | | 【同友】 | 前 | 後 | 反 |
|---|---|---|---|---|---|---|---|---|
| 0 | 4 | 2 | 朴泳洙 | F | 鄭熙昇 | 4 | 4 | 1 |
| 1 | 8 | 6 | 金振秀 | | 鄭東鎭 | 4 | 6 | 0 |
| 0 | 3 | 10 | 金在春 | C | 徐銘淳 | 4 | 4 | 2 |
| 1 | 6 | 2 | 曹東煥 | G | 高丙徹 | 4 | 4 | 0 |
| 0 | 8 | 0 | 安台慶 | | 金化泳 | 4 | 2 | 0 |
| 2 | 29 | 20 | | | | 20 | 20 | 3 |

## 庭球

### ◇專門部決勝

延專對普專庭球決勝戰은 同午後四時三十分부터 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 行한바 延專의高昌烈、權福仁組猛闘하야 普專組를모조리이겨 優勝하엿다

(決勝戰)

【普專】　　【延專】勝

○(趙福在 金容善)4…1(金光鉉 權仁植)×

×(李鍾元 元鍾洛)1…4(高昌烈 權福仁)○

○(金德壽 金德甲)4…1(金鍾得 李慶得)×

【第二라운드】

×(趙福在 金容善)0…4(高昌烈 權福仁)○

【第三라운드】

×(金德甲 金德壽)1…4(高昌烈 權福仁)○

### ◇中學部決勝

第五日의 養正對徽新庭球決勝戰은 二十六日午後三時에 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 開始되다 養正軍第二라운드에 드러가 悠悠히 徽新軍을 擊退하야 優勝하엿다

【養正】勝　　【徽新】

○(任完淳 趙世元)4…1(金斗衡 吳台煥)×

×(朱漢鏞 尹泰淑)1…4(徐興錫 李應基)○

○(金成學 尹周鉉)4…3(李智永 金景祐)×

【第二라운드】

○(任完淳 趙世元)4…2(徐興錫 李應基)×

## 씨름

綜合競技第五日의 中等校씨름戰은 二十六日午後三時부터 行한바 다음의戰績으로 普成高普가 優勝하엿다

【第一回戰】 普成高普4…1協成實業

【第二回戰】 徽文高普4…1安州農業 普成高普4…1中央高普

【決勝戰】

【普成】勝　【徽文】

○朴允煥…李明燮×

×李昌吉…朴道淳○

○趙壽夏…金德鐸×

×金觀榮…崔昊洙○

○李相應…具然相×

★綜合競技大會★ 第五日各部優勝팀

- 蹴球 專門部…延專 中學部…徽文高普 一般部…淸津
- 籠球 專門部…延專 中學部…中東學校 一般部…高麗
- 庭球 專門部…延專 中學部…養正高普
- 씨름 中學部…普成高普

## A마라손會 邊鍾緖君一着

서울陸上競技聯盟主催 第九回A마라손會는 豫定과가티 二十六日午後三時에 光化門通四街里廣場을出發點으로 漢江鐵橋北端往復코ー스(約八哩)에서 行한바 黃海道選手 邊鍾緖君이 다음과가튼 記錄으로 勝利하엿다

【總타임】

1、邊鍾緖(黃海)43分19秒
2、鄭壽吉(서울)43分46秒
3、權命石(京城)46分7秒
4、洪世仁(商工)46分40秒
5、金大奉(仁川)47分34秒
6、秦昌植(商工)47分51秒
7、崔淳京(工科)48分1秒
8、丁金燮(東城)50分1秒
9、鄭基俊(京城)50分20秒

【前半타임】

1、邊鍾緖(黃海)21分10秒
2、鄭壽吉(서울)21分25秒
3、權命石(京城)22分15秒
4、洪世仁(商工)22分42秒
5、秦昌植(商工)23分55秒
6、鄭基俊(京城)22分56秒

## 官專蹴球戰 來十、十一兩日間

今年度官立專門學校蹴球戰은 十一月十、十一兩日間 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開始될터인바 參加校는 高商 醫專 高工 法專 高農等六個校로 抽籤結果는 다음과갓다

【第一回戰】 가、高商對醫專 나、高農對法專

【第二回戰】 高工對가의勝者戰 對나의勝者戰

## 送別蹴球 今日正午徽文球場

世界蹴球大會의 朝鮮代表팀對 今般綜合競技大會 優勝팀 淸津軍과의 送別蹴球戰은 今二十七日正午부터 徽文球場에서 열기로 되엿다

## 試合中降雨로 早慶戰中止

【東京電話聯合】待望中의 早大對慶應第一回戰은 二十六日午後一時三十分부터 神宮球場에서 慶應先攻으로 開始되엿는바 第三回末時에 豪雨때문에 試合을中止한後 二十七日에 試合을繼行할터인데 第二回戰期日은 未定이다

## 今日의運動

◇綜合競技最終日

▲劍道=高點劍道試合 午前十時
▲力技=力技大會 午前十時
▲野球=中央對맥시코 午後三時
(以上京城運動場)(觀覽無料)
▲卓球=大學 專門卓球大會 午前九時 本社講堂
▲送別蹴球=올림픽派遣蹴球選手 送別戰 派遣팀對淸津팀戰 正午 徽文球場 (觀覽料普通二十錢 學生十錢)

## 暴風警報

二十六日午後八時三十分 仁川觀測所發

北西風이强하고 氣溫이 急降한다 咸鏡南北道와 江原道沿岸警戒하라 低氣壓中心은朝鮮北東部에잇서 七四八미리를보이며 東北東에 進行中이다

## 택시ー에치어 二歲兒危篤

이십사일 오후세시반경 부외연희면아현정리(延禧面合井里)발 경소(京城所)조금 못미처 길가에서 그동리사백사번지 정수흥(鄭壽興)의 맛아들 인석(仁錫)(二)이란 어린아이가 놀다가 때마츰 경성역에서 경성역앞으로 (京日×택시)운전수 송재동(宋在東)이가 운전해가지고 달려오든 경제구천사십칠호자동차에 치여 서 바른편다리가부러지며 께므러처너머진것을 바로 현장에서 철도병원(鐵道病院)에 입원시켜 치료중이나 생명이위독하다 한다 그리고가해자인 송재동은 룡산서에서취조중이다

## [illegible]上告訴 金富豪가 逐敗訴 結局三千圓支拂키로

경남간부 저기레(金若部)(二)씨는 시내황금정(黃金町)최정옥이 리복남(李福男)이라는 스물두살먹은 처녀로부터 정조유린으로 말미암아 위자료오천원청구의 소송을 맛나서 굼변 오월 이십삼일에 경성복심법원에서 녀자에게 삼천원을 주라는 판결을 밧고 고등법원으로 도복상고하엿든바 고등법원 변(渡邊)재판장은 상고인 김씨의 변명리유를 채용할수 업다 하야 이십오일에 상고기각의 판결을 내리웟다

그리하야결국 김씨는 녀자에게 위자료 삼천원을 물려주지안흘수 업게되고말앗다

## 永登浦管內에 鼠賊頻頻發生

【永登浦】시외영등포(永登浦)는 날노발전하여 나가는반면에 도난사건이상당이 늘어서 그피해액도 적지안타는데 방금경찰에 검거되여 취조를밧는사건만도네 건이잇다고한다 하나는 영등포역전(永登浦驛前)매일상점(每日商店)점원 조명석(趙明錫)(二二)이가 수금한돈과 주인모르게 팔어먹은돈 가감 백이십원을 횡령하여가지고 다라나려다가 영등포서원에게 밧끼 검거된것이고 둘재는 로량진(鷺梁津)본동삼백오십팔번지 김귀남(金貴男)(二二)이란 자가 명치정에 로량진 리강호(李康浩)양조장에서 쌀한말을 훔치고 동리석조당(楕寸堂)시계포에서 시계 네개와 부속품등 시가이십여원어치를 훔처 팔어먹고 또다시 로량진녹배스동점에서 술취한사람의 소매치기를 하다가 순찰하든 로량진 주재소원에게 밥가검거 되것이고 세재는 로량진(鷺梁津)외집 고용으로 잇는 방병영(方炳永)(二)이가 주인이외출한틈을 타서 현금일백륙십원을 훔처가지고 어듸로도망하것을 영등포서의 수배로그붓잡지 인천북(仁川北)순찰경찰서에서 체포하야인송된것이고 넷재는 본적을수원군반월면(水原郡半月面)에둔 리태영(李泰榮)(一七)이란자가 시흥군남면 군포장(始興郡南面軍浦場)박성녀(朴姓女)의집에 고용사리하다가 그주인이 출타한틈을타서 현금시십원과 시가백여원의 금반지 두개를훔처가지고 자전거로 그본적지인수원으로 도망가는것을 군포주재소원이 검거한것이다

## 漁船一百卅餘隻 新浦港에서遭難

### 行方不明漁船만四十餘隻 咸南地方大暴風雨

【新昌支局特電】작변에 어선백척이 행방불명이 되는사변이생겻든 함남신창(新昌)항구에서는 이십륙일 오전령시부터 폭풍우가 쏘다저서 축항안에잇든 낙시배 칠척과 멸치잡이배 륙십오척이 풍랑을 맛낫다 매축지에서 이백미돌 되는 바다에서 이날새벽에 구조해달라는 신호(信號)가 잇섯스나 워낙 풍랑이 심하기때문에 도저히 구조해낼 도리가 업섯다 그래서 그배두척에 탓든사람들은 생사가불명이고 행방불명된배는 낙시배 여섯채와 멸치배 다섯채와 강원도서온 낙시배 삼십척이라한다 풍랑을 맛난 시간을 미루어보아서 신포(新浦)방면에서렵지로 정박하고 잇는듯하나 아즉안심할수업다 신창어업조합(新昌漁業組合)에서는 방금 구조선을 구하고 잇는중이다

## 渡船이覆沒되여 六名이無慘溺死

### 三人을건저내다犧牲된義人 大同江上流에서

【平壤支局電話】이십륙일 오전여덟시반쯤에 평남대동강(大同江)상류인 대동군추을미면리천리(秋乙美面梨川里)와 시족면삼산리(柴足面三山里)사이에잇는 나루에서 풍랑으로 말미암아 나루ㅅ배가 어퍼저서 그배에탓든 사람가운데서 일곱명은 구조되고 여섯명(녀자 두명과 남자 네명)은 빠저죽어버렷다한다 배에 탓든 사람들은 모다그근처 장수(長水院)시장에 장보러 가든 사람들이엿다하며 죽은사람가운데 조재윤(曹在允)이라는 스믈세살 먹은 청년은배가 어퍼지게되자 용감히 물에 뛰여드러 세사람가운데서 두명을건저내고 다시 건저내려다가 그구조를 밧든 사람이 정신을일코함부로끄러닥치는 바람에그만 기운이 쇠진하야 참혹히 희생되여버렷다는 눈물겨운 가상한 일도 잇섯다한다 이급보를 밧고 부근 경관주재소원들과 소방대와 부락민들 수백명이 출동하야 구조된 일곱명을 구호하는일방으로 빠저죽은 사람들의시체를 찾는중이다 그곳은 워낙 수세가 사나운곳이기때문에 좀처럼 발견되지안하야 이날오후 네시까지에도한개도 발견되지안핫다한다

## 漁船十七隻失踪 漁夫六名이溺死

【咸興支局電話】전진항(前津港)에서 대풍우가잇서서 전진항구에서 정어리자망(刺網)어업조합으로부터 함남도청에드러온 보고에의하면 이십오일부터 선열일곱척이 행방불명이 되엇는데 배에탓든 어부들가운데 일곱명이 물에빠저 죽엇다고한다

## 日曜講話

◇向上會館 午後七時 高忠業氏 『彼土와此土』

◇貞洞教會 午前十一時 梁栩煥牧師 午後七時 未定

◇覺皇寺 午前十一時 李重徹 가난한과부의긔도 今後의宗教

◇南大門外教會 午前十一時 朴喇權先生 밋느냐? 午後七時半 崔允寬牧師

◇中央基督教青年會 午後三時 鄭景玉氏 새사람되자

◇尙洞教會 午前十一時 金英珠牧師 한마음 午後七時 金鴻呂牧師 信仰의秋 예수의孤寂 金鍾萬牧師

## ◇百貨店에鼠賊

이십사일부내 종로경찰서사법게에서는 백화점화신(和信)이층에서 거동이수상한 강원도원주(原州)출생 한긔영(韓基榮)(二二)을 데려다가 엄중취조중인데 그는 화신에서쓰는 물건싸주는 용지를리용하야 지난십륙일오전열시경 화신이층에서 아해들의속옷과 단장과다 여러물품을 훔친것을 비롯하야 두어차례나 이와가튼 수단으로 물건을훔치다가 마천내붓잡힌것이라한다

# 食刀로相擊互刺 賭博中殺人慘變

### 朝中人間에言語不通으로言爭끄테 昨夜西小門町中國人街서

조선인과 중국인사이의 언어불통으로인한 오해와 아울려노름끄테 금전상관계로 무시무시한 살인참극이 쌀쌀한 가을밤중국사람거리에서 일어낫다。

이십륙일 오후여덟시쯤 되여 부내서소문정(西小門町) 삼십삼번지 중국인 우홍(于紅)(四七)의 집이층에서 전기우홍이와 북미창정(北米倉町)오십오번지 조선사람 김성옥(金成玉)(二三)이가노름을하든끄테 옥신각신 말다툼이 되며 서로욕설을하다가 전기김성옥이가 기리일곱치 가량되는 식칼로 우홍에게 덤벼드러찔르자 그도지지안코 마자식칼질을 하여 우홍은복부기타 두어곳에 치명상적 중상을바더 현장에서 즉사하고 김성옥은 머리에상당히 기픈상처를 입은채로 욱정(旭町)리호병원(瀨戶病院)으로달려가 치료를 밧고잇는것을소관 서대문서(西大門署)에서 이를탐지하고곳 그서서장이하 서원총출동으로 달려가김성옥을 체포하는한편 지금가해자를 취조중인데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부터는 주견(酒見)검사가 현장에 출동하여 검시를 하엿다한다 (사진은 흉행잇든집×인곳현장)

## 朝鮮少年軍 創立十三週年記念式

부내 중학동(中學洞)에 잇는 조선소년군총본부(朝鮮少年軍總本部)에서는 래이십칠일 오전십일시에 장충단공원(奬忠壇公園)에서 창립십삼주년긔념식과 운동회를 거행한다는데 일반의 참석을 바란다고 한다

# 帝大看護婦宿舍에 腸窒扶斯가發生

### 百五十名看護婦를收容處 燈下不明의傳染病魔

작금 때는진 가을비로 말미아마 갑작이 긔후가 변해지는 탓으로 한여름동안 잠잠튼 전염병이 마지막 끄리를 치는지 시내 각처에서 여러가지 전염병이 또다시 발생하기 시작하야 이십륙일 하로동안에 시내 동대문서(東大門署)관내에 발생된 환자만해도 여덜명에 달하는데 특히 주목을 끄는것은 일백오십명의 간호부를 수용하고잇는 대학병원(大學病院)간호부 기숙사에서 장질부사가 발생된일이다

즉 그 긔숙사 제삼호실에잇는 궁전지자(宮田智子)(二〇)라는 간호부가 지난 이십이일에 발병하야 신음하던중 이십륙일에 김사일(金思馹)의사의 진단에 따라장질부사로판명되여서 곳환자를 전염병실로 옴겨가는동시에 그삼호실과 부근일대를 엄밀소독하엿다한다 아직 그전염계통은 자세히알수업스나 간호부가 묵고잇던 열일곱명의 간호부는 예방약을 아직먹지안헛스며 매일밤환자를 접대하는만치 외부에서 전염되여 들어온듯 하다고한다

전긔와가티 이십륙일 하로에 동대문서관내에 발생된 환자는 다음과갓다

▲昌信洞五八六 金斗鉉 파라티부스 ▲大學病院에서 崔大鵬 同 ▲新堂里一六(ㄱ)의三五 金氏(鷹金扶斯) ▲蓮建洞一八 山口春子 同 ▲貫鐵洞五四 劉明源 同 ▲大學病院에서 順川慶子(지프데리아) ▲蓮建洞七三 金應五 同

## 남치마를쓰고 少婦가投身

### 昨夕漢江人道橋下서

이십륙일 오후한시반경 한강인도교에서 약삼백「메돌」가량되는 백사장으로 노랑저고리에 청치마를 입은 나이 스무살가량된 주소성명을 알수업는 꼿다운 여자가 시름업시 거러가서는 강가에 다다르자 먼저 무신을 버서논뒤 치마를 뒤집어쓰고 물로 뛰어들어 자살을 하고 말엇는데 마츰 이 광경을 다리우에서 바라다본 통행인이 달려가서 이를 말리고저 햇스나 때는 이미 늣엇는지라 바로 한강파출소에 이사실을 게출하여 지금 룡산서에서는 시체를 찾기에 활동하고잇다

## 傷害致死코避身

충남아산군신창면신흥리(新昌面新興里)강완선(姜完善)은 이십삼일오전아홉시경 그동리 김춘배(金春培)(四?)와 사소한 일로말다툼을하다가 그의가슴을때리여 죽게한후 어데로도망하엿는데 경성방면으로 달어난형적이잇다하야 이십오일충남경찰부로부터 경긔도형사과에수배가왓다

# 頭痛·齒痛·腦疲勞에 먹으면 곳듯는

獨逸原名 ハイテル

# はれやか 하레야가 頭의榮養劑

## 謹告

### 販賣店 愛用者 各位

發賣以來겨우一年有半、頭腦榮養劑『하레야가』의躍進에는 藥業界도奇異한눈으로바라보고잇는바、이것은그藥質에도依한바나、各位의偏愛하여주신熱誠잇는支援의結晶이라고、弊舖이感謝를올니고잇는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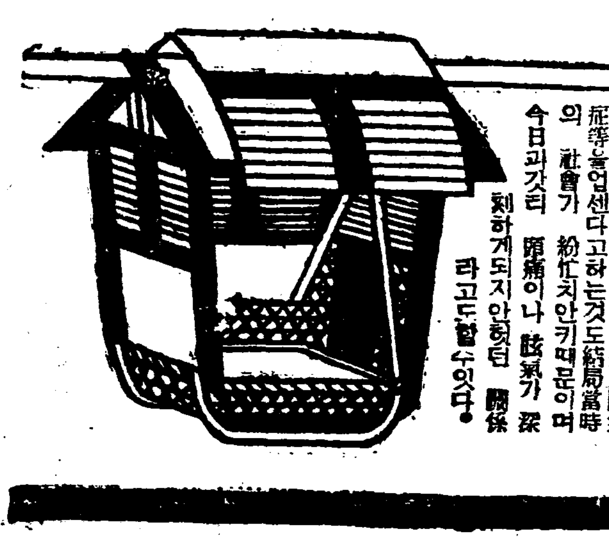
特히今般『하레야가』의藥質이當局에認證되게되야『頭腦의榮養劑하레야가』로써 處方名의認可를밧게된것은참으로 깁붐을 못견듸겟나이다。從來榮養劑란 名稱을 가진藥品은 만히잇스나 當局의認可를어든것은 皆無한狀態로서 我國에서『榮養劑』로써 處方名을 어든것은 실로今番『하레야가』로써 嚆矢라고합니다。

아신바와가치 只今까지의 頭腦藥이라하면麻痺藥(鎭靜劑類)를 主配로하야서 一時的으로는 苦痛도抑制할수잇스나 病의根本에는 조금도 抵觸치안코더구나 무서울만큼 心臟과 胃腸을 납부게하는副作用이딸어단인답니다。

그런데『하레야가』는 이러한 種類의藥과 는全然다른것으로 먹은즉 곳 苦痛을除去하는同時 特히本劑가다른데서 보지못할 最大特長으로하는것은、일즉 弊舖가力說하여온바와가튼燐、칼우숨等의頭腦必須의榮養分을 主劑로하야서、腦病狀의 根本的原因인榮養素의 不足을 補充하야 病因부터 根治하여갈뿐만안이라 胃腸까지도 强化식히는 藥効를 具備하여잇다。이런顯著한 事實이當局의 認證한바로 되야、日本最初의 光輝잇는認可를 어든바이니、아무조록本劑의特長과、從來의 頭腦藥과 의差異와를明白히 區別하시와 一層 더愛用하여주심을 懇願하는바입니다。

「하레야가」本舖 敬白

## 明治以前
### 梅干·鉢卷療法



四人轎를타고 흔드적거리면서 閑歲月을보내든 옛날그때에는 모든일이 가장 느릿하엿다 今日과가티 頭腦를 酷使치안코도 지나섯든것이다。따리서 그時代에는 頭痛이라하면 幼稚한薄荷葉貼用이 以上더업는 妙法으로서 生覺되얏다 鉢卷頭痛法과함께 頭痛法(?)의 雙壁으로서 行하여젓든것이엿다。

머리를 手巾으로 잘나매여 壓迫하여血行이 멈추면 瞬間的으로 氣分이 輕하게되는것은 特別히 手巾으로 머리를잘나매지안코도 손고락으로 관재로리를눌너보면 알게된다。또는 薄荷葉을짓니여 관재노리에 붓치면 酸味가浸透되야瞬間神經이僅僅히鎭痛作用을이르키게됨으로써多少간의 一時的鎭痛을하지만 病因的으로 본다하면 오히려 낫분副作用을갓게된다 今日의 鎭痛劑보다는 오히려 나은便이라고 할넌지모르지만 그러나 이런程度의 手當으로 頭痛、眩氣症等을업센다고하는것도結局當時의 社會가 紛忙치안키때문이며 今日과갓티 頭痛이나 眩氣가 深刻하게되지안헛던 關係라고도할수잇다。

## 明治時代
### 下劑療法

四人轎가 唯一한交通機關이어섯든時代로부터 一步나아가 人力車가 大衆的乘物로써 發明되고同時에、薄荷葉에 代行된 頭療膏가 出現하게되엿다。

이것은 一步前進하야 薄荷를 짓니여布에발너 藥을맨든것인바 이것도 結局酸味를 利用하야 皮膚를 浸透刺戟식히는 形式的作用에 不過한것이엿다 마찬가지로 頭腦의 痛症을 一時的으로 中止식히며 布에발는것이 皮膚를당기여 오히려 압흐게 하는것이다 手巾으로 머리를 잘너매는 結果와갓흔効果에 틀님업는것이다。

그런데 畢竟薄荷葉이나 鉢卷法이나 結局은 同樣의것이며 갓튼明治時代의 療法이라도 下劑法ㅡ即頭痛의 原因은 便秘임으로써 便秘를 快通케하면 良好하게될것이라고 生覺하엿든것이다 下劑療法은 偏見的이라도 하겟지만 心臟、胃腸을害할 무서운 副作用을가진 鎭痛劑類보다는 病原的으로는 多少간 根據가잇다하겟지만 間接的으론 効果가 되든것이 缺點이며 一般的으로 普及되지못하고 만것이다。

## 보라! 이比較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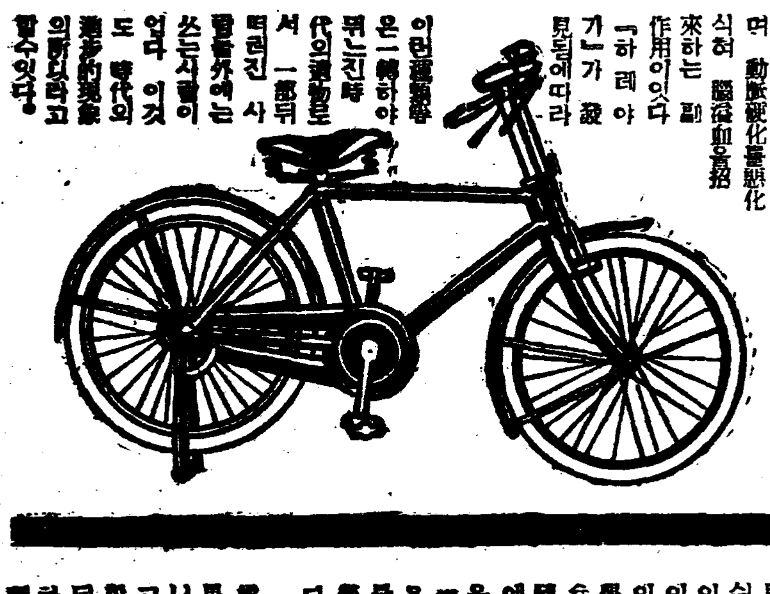
### 從來의頭腦藥 單一頭痛藥

★病의表面만治療하려햇다。
★藥効가消滅되면다시 病症이잇다 連服하면 무서운 副作用이 생긴다。
★胃腸壁을害하는것이엿다。
★心臟을害하는것이엿다。

### 하레야가 頭腦榮養補强藥

★病症과 괴로운것을 곳醫한다。
★病의原因으로부터 治療함으로써 藥効가 消滅하는일이업다。
★連服하면 더욱 더욱 머리를 조케한다。
★胃腸을 强化하며 副作用이업다。
★頭腦의 榮養을 補充함으로써 腦호루몬의 分泌을 昂上하며 全身機能을 活潑케한다。

## 大正時代
### 頭痛鎭靜劑療法



輕便하고 便利한 自轉車가 大衆的乘物노서 歡迎되든것갓티 服用하면 一時는 痛症과 괴로움을 抑制하지만 腦血管을 鎭靜劑가 全盛을 極하든바이지만 腦神經을 잠시라도 一時에여는 解熱劑와 腦神經을 麻痺식히는 麻痺劑를 主配品으로하는 말하자면 痛症을 中止식히는 藥입으로써 多時間이 經過하게되면 다시 痛症이 逆轉될뿐아니라 藥質의 關係로서 胃腸을상하는지、胃痛、潰瘍等의 生命을 그릇티리는 病을惹起하며 心臟을 弱하게하며 老衰를 速하게하며 動脈硬化를招來하며 腦溢血을招來하는 副作用이잇다 『하레야가』가 發見됨에따라 이런鎭靜劑는 一轉하야 新時代의運動로서 一部뒤떠러진 사람들外에는 쓰는사람이 업다 이것도 時代의 進步的現象이라고 할수잇다。

## 昭和現代
### 頭腦榮養補强療法 (胃腸을튼튼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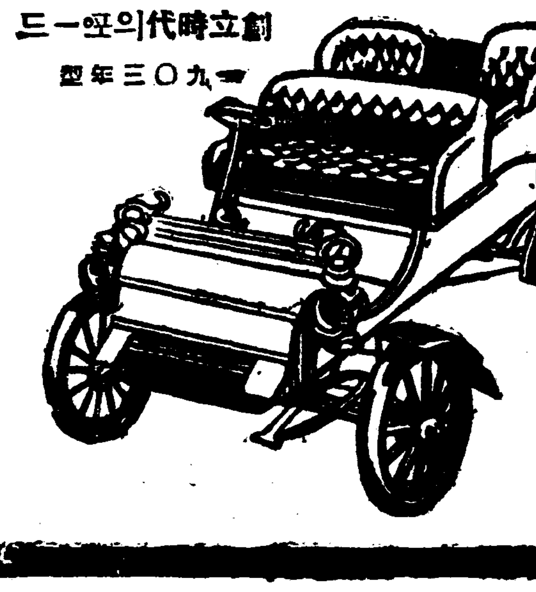
新學說이主張하는 頭痛眩氣其他의 모든 腦症狀의 原因은 腦髓에 鐵이라고하는 榮養素가 缺乏되기때문에 只今하나은 胃腸機能의 減退와 炎症의 影響에依한 自家中毒이 腦를 害하는 結果에빠진다고하는 事實과 一致되고잇다。

現代와갓티 街頭에는 自動車가 洪水와갓치 馳驅하며 生活은 多忙하야 [illegible] 神經을쉬일틈도업는것이다 오히려頭腦를酷使할뿐아니라 頭腦榮養素는항상不足되기쉬운時代、神經系統의病이 增加하는것은學者等이一般的으로 認하는바이지만『하레야가』는右의學說에비치여、燐、칼르숨을 直接的으로腦에補給하는同時에自然히胃腸을 튼튼케하야 [illegible] 性質을 倂有하는 最新의 頭腦榮養補强劑이다。

따라서頭痛眩氣等에 効果가 速하야 [illegible] 服用하면 服用할수록 効果가 顯著하게되야 頭腦도明快하여지는것이 只今까지의鎭靜劑와는判異한 特色中의 特色이 잇는것이다。

## 消極主義의 婦人의思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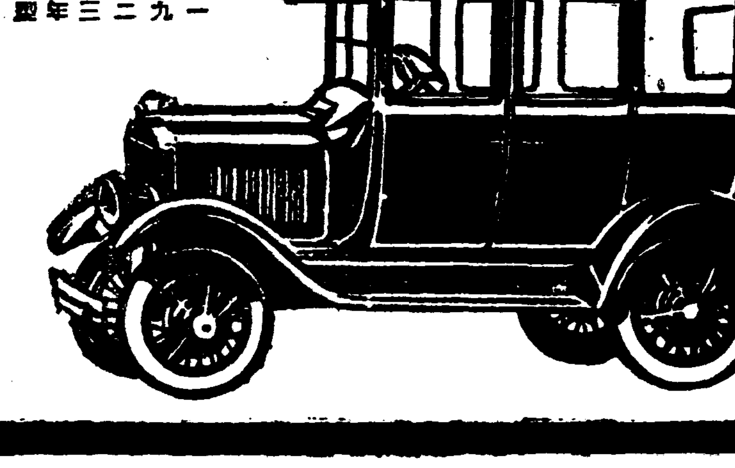
創立時代의포ー드 一九〇三年型



[illegible] 한가지를 固守하려는 [illegible] 日本婦人의 美德이나 이것이最近에서 [illegible] 積極的으로 되기엿다 例컨대포ー드創立時代車가 [illegible] 하다고 하여서 現在에도 최신 進步改良된車가잇슴에도 不拘하고 아즉까지 그것을 使用하고잇는이가 不少하다『하레야가』라는 가장進步된 藥이잇슴에도不拘하고 [illegible] 副作用만은 [illegible] 을쓰고잇는것도 그조흔例이나 조흔것은 조타고하야 取하는곳에 進步가잇는것이아닙니까。

## 姙婦에는危險한 從來의頭痛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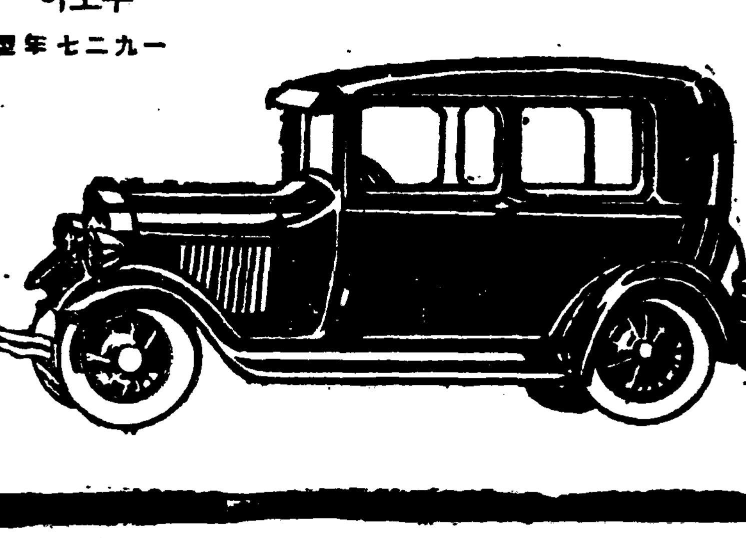
木製車輪時代의포ー드 一九二三年型



麻痺劑을 主劑로한 只今까지의頭痛藥(鎭靜劑)는 一時的으로 苦痛을 緩和하게하나 이것을 쓰지고 姙娠으로된 異狀으로부터 오는頭痛이 난다고하야 濫用한結果 胃腸을害하야서 [illegible] 를 [illegible] 하게하엿다든가 心臟이 弱하야 [illegible] 中絶이 나[illegible] 의[illegible] 로[illegible] 이엿다 [illegible] 만한 가지 [illegible] 안흐 로特히 姙婦에 게이런 것을使 用하신 다는것 을注意 하지안 흐면안 된다

## 藥質의研究는 婦人의責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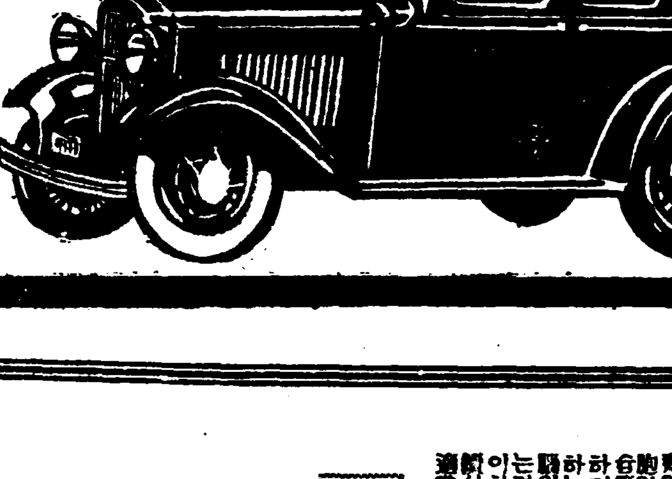
포ー드A型 一九二七年型 투도아



主婦로서의 婦人은 또一家의 [illegible] 로서 [illegible] 의性質과 一般的[illegible] 上知識을알어둘 責任이잇스나 이러한일에는 意外에도 無關心하고잇는 婦人이不少하고 男便이 너무業務하게 活動하야 머리가무겁다든가 頭痛이 난다든가 宿醉난다고하면 一時눈가림인 副作用잇는 頭腦藥을 勸한다 그런데머리에 異狀잇는것은 胃腸[illegible] 나 [illegible] 에依한 [illegible] 榮養素의 不足이 原因이 되야승 으로이 病原을 根治식 히는 「하레야가」[illegible]

## 子女들의工夫에 好適한頭腦榮養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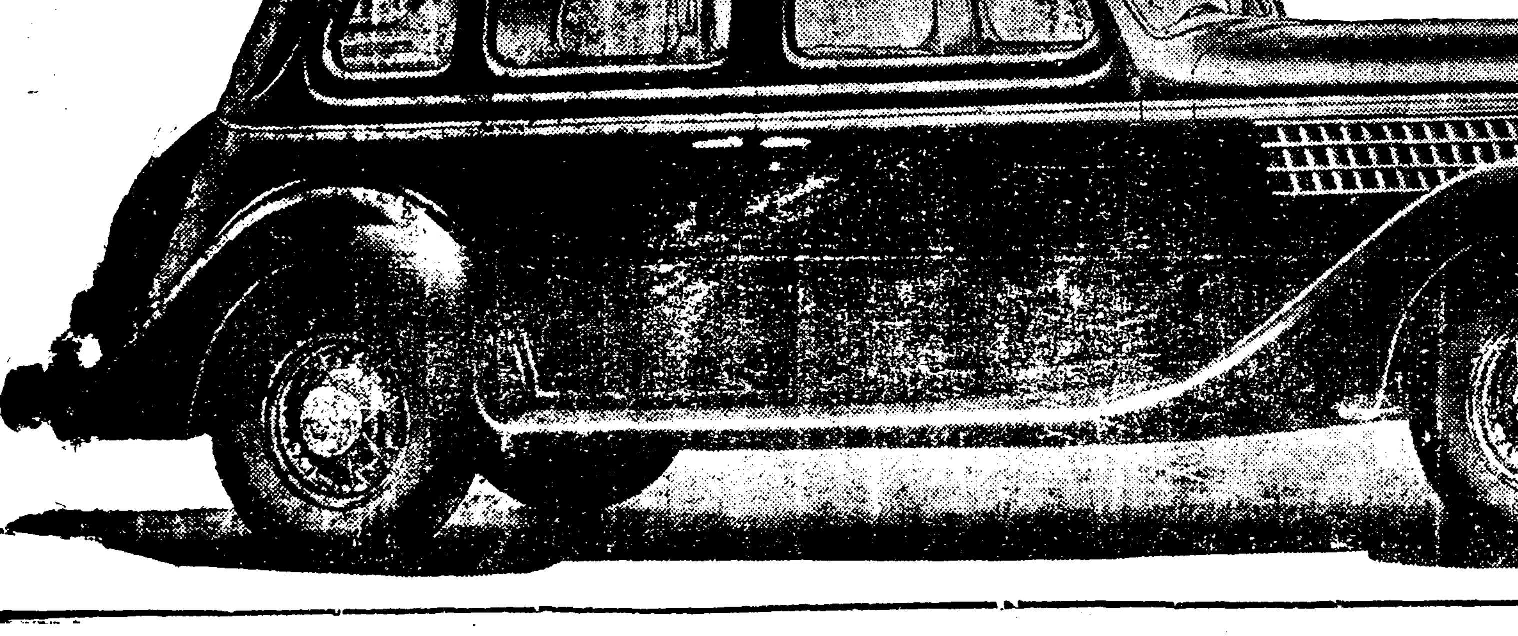
V―8型엔진 附포ー드 一九三二年型



子女들의工夫라하면 父兄들은 病床에만바뀌을 욕겨서 身體에對하여는 無關心하게되다大[illegible] 우리[illegible] 라고하면鐵、칼우숨을 主劑로하야서이 것은 머리를쓰면 쓸사록 消耗되는것으로 그 [illegible] 이 不足하면[illegible] 가이 減退되고머리가 [illegible] 하게되든바며 리의 榮養劑 『하레야가』 는鐵、칼우숨 을主劑로하야 直接으로머리 에榮養을補給 하야머리를조 케하고胃腸을强 化의藥効가잇 슴으로참으로 學生들에는好 適한藥이다

## 自動車는 포ー드! 頭痛에 하레야가!

一九三五年V型八氣筩포ー드



一九三五年型포ー드의重量分配法은搭乘의座席이前後車軸의中間에잇어、安定되게設計되엿슴으로써、鐵道客車의中央部에 座한것과가치安樂한맛을늣길수잇다

## 이와가튼症狀이― 잇지나안습니까?

▽頭重、眩氣나는
▽머리에한맘이지근지근하는
▽머리에帽子을씨운가튼
▽꿈길이二重이나、三重으로뵈이는
▽언제나頭痛을이알이는
▽그러케 [illegible] 이안되는
▽아모리工夫해도記憶안되는

이런症狀이잇스시면 그것은 頭腦의그어느部分에나 缺이잇는 證據이다。

이런때에『하레야가』를 服用하면 症狀뿐만아니라 [illegible] 作用하는 頭腦細胞와가치 對症療法과다른 根本的으로、鐵、카루숨의 榮養素를 直接的으로補給 [illegible] 하는藥効도 完全히治療에 引導하며 또는 症狀을 根本的으로써 [illegible] 腦의根原[illegible] 이라고도 할수잇 는것으로써 疲勞와 頭腦가 이겨낼것을 이처케되여 언제나 [illegible] 力을保持 [illegible] 하여야할 우리現代人에게는 가장 適當한最新頭腦藥이다。

## 近 하레야가엔 代用藥이업다

代用藥의 [illegible] 에따라 [illegible] 의 [illegible] 이「하레야가」는 [illegible] 의主成分이오 [illegible] 이미 論證한바와갓다。
따라서 普通一般的鎭痛藥과는 全然 그 効果性質을 달니하는것이고 [illegible] 活動하는 現代人의頭腦에 必要한 [illegible] 로서 또는 絶對的으로 副作用이 업는 [illegible] 全然他의 代用藥이업는 最新의 [illegible] 藥이된다。全國藥店에서販賣되여잇스나 萬一藥店에서品切時에는 藥店에 노케하든지、直接本舖에 注文하라。

主効 頭痛·齒痛·不眠症·神經衰弱·히스테리·疲勞回復·眩氣·宿醉·船車醉·胃腸疾患에基因한頭痛

藥價 低廉 三十錢·五十錢·一圓 二圓·三圓·五圓

販賣元 東京銀座西一ノ五 はれやか本舖 日獨醫化學研究所 電話京橋(56)八二五〇 振替東京三〇〇四三番

# 凶漁로울든元山港 鰮魚洪水로大活況

## 海面의潮流元山에接近으로 一日間陸揭高近萬樽

【元山】함남연안에 예년에업든 정어리의 대풍작으로 말미암아 일반주민은 수무축도한다고 할은 긔보한바어니와 그런중에도 원산해안만은 정어리가 잡히지 안히 당업자들은 초려를마지안코 일반은 고대에부심하던바해면의조류가 점차 원산으로접근되어 비로소 지난이십삼일부터 원산연해에도 정어리의 어군이 군집하게되어 속속잡히는 중인데 원산에 륙랑되는수만도하로 예딸구천준(樽)에 달하야 분두에는 대호황을 일우는중이며 예전에 수산업자측과 공장관계자와의간에 협정하엿든 표준가격인한준에 일원구십전은 공장의 소비불능관계로 폐의와가리 파귀되어 지금은일원정도로 매매되는중이나 처치에 곤난을늣기는중이라고한다

### 松葉競賣落札에 部落民의不平

【淸州】충북도산림과(忠北道山林課)에서는 지난구월이십구일경 청주군 사주면 룡정리(淸州郡四州面龍井里)후방 낙가산(洛迦山) 도유림에 간벌(間伐)한 송엽(松葉)을 경매에대한 경매를 하엿다는데 락찰(落札)한자는 도유림의 감시인되는 오모(吳某)의친척 오모로 한집에대하야 삼십전식 합계 일천팔백원을 납금하엿슴에대하야 동룡정리민들은 대다수가 나무장사로 송엽의경매되만 기다려 입찰을 하랴한 사람이 만핫슴에도 불구하고도 당국은 경매에 공고도업시 일개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엿다고 리민들은 대불만을 가지고 잇다한다

# 高城署員血眼活動 青年數名을檢擧

## 箇中에는現面公職者도잇서 某思想事件의關聯?

【杆城】약일주일전에 고성서에서는 간성면 동호리(東湖里)모청년을 검속하야 엄중취조하든중 지난 이십사일 오전여섯시경에 돌연히 고성서로부터 형사 세명이 간성읍에 출장하야 모면사무소 현직산업기수의 집을 가택수색하는 동시에 본인을 검속하고 이어 전일에 모면소 회계원으로 잇든 청년한명을 또다시 검속하야 간성주재소에 유치하야두고 동호리방면까지 외종일 엄중조사하든다 오후 팔시경에 또 두청년을고성서로 호송하엿다는데 내용은 극비밀에 부침으로 아직 알수 업스나 탐문한바에 의하면 모사상운동에 관련되것이나 아닌가고 해석된다고한다

### 本社支局後援의 婦人運動盛況

【統營】통영가사연구회 주최와 동아、조선량지국과 녀자동창회 후원하의 제일회 통영가정부인 추긔운동회는 예정과가티 지난 이십일일 오전구시부터 학우운동장에서 정각전부터 운집한관중잇해서 권순이(權順伊)씨 개회사로 개막되며 오십여종의다수한 경긔종목이 순서잇게 진행되엿는데 더욱이채를 띄운것은 신구호례식의 가장행렬이엿다한다

### 瑞山法院支廳 新築落成式擧行

【瑞山】=두보=거금사년전인소화칠년 삼월에 돌연 사무정지가되엿든 서산법원지청부활에 대하야 부활긔성회장 도촌인조씨를 필두로 동이원 전영서 소전여시랑 치전신평 천단승춘(具田永興、小田與市郎、池田新平、川端勝春)외 제씨의심혈경주로 드듸여 부활되는동시에 곳청사신축의 도정에 올라 총공비삼만원에 경성궁본조(京城宮本組)에서 공사를청부하야 금춘사월이십삼일에 긔공하야 주야 겸행의 급속도로 공사를 진행한바 지난구월중순에 준공되야 금월일일신청사에서 사무를 개시하얏다는데 락성식은 금월이십칠일동청사에서 성대히 거행하기로 결정되야 의원제씨는 준비에 일야대분망중이라고한다

◇…丹楓에 물드린 牡丹峰公園一帶

### 港勢發展따라 勞力供給不足

【淸津】날로거듭할수록 번창하는청진항에는 로동자가 부족한관계로 각방면사업계에서는 큰랑패를보고잇다는바 현재청진항의로동자임금을 조사한바에의하면

| 種別 | 賃金 |
|---|---|
| 牛車夫(牛車夫) | 六、〇〇 |
| 造船工 | 二、五〇 |
| 石工 | 二、四〇 |
| 左官 | 二、四〇 |
| 用役夫 | 二、四五 |
| 煉瓦積 | 二、四五 |
| 벽기공 | 一、九〇 |
| 鍛工 | 一、五〇 |
| 仲仕 | 一、一〇 |
| 平人夫 | 〇、九〇 |
| 大工 | 一、八〇 |

이상과가튼 임금을주어도 로동자를 어더볼수업다는데 그리유는 대게 정어리잡이로 만히몰려든 관계로서 그들의 일급은 월등이상원이라고한다

### 少年一名轢死

【全州】이십삼일 오후여섯시반에 삼례(三禮)를떠나 고산(高山)을 향하든 전북제×호이십×호를 운전수오문긔(吳文基)가 운전하고 오든중 봉동면시장(鳳東面市場)부근을당도하자 가로지나가는 동면유일구(尹日求)라는 열한살먹은 아이를 륙살식혓다는데 어급보를 접한 전주경찰서에서는 사법주임이하 두형사가 현장에급거하야 검증(檢證)하엿다고한다

# 廿五週맞는平高

## 十一日一、二兩日同校講堂에서 記念式敬老會等開催

【平壤】평양고보(平壤高普)에서는 십일월일일이 동교창립이십오주년 긔념일이므로 일、이량일간 동교강당에서 성대한 긔념식을 거행키로 되엿는데 절차는 다음과갓다

—記念式順次—

一日……午前十時부터記念式 午前十一時부터 學藝品展覽會

二日……午前十一時부터 記念音樂會及 敬老會開催

# 教育者의處地로 教育事業에沒理

## 一部地主의態度頑强으로 新東公普校實現遷延

【永登浦】시흥군(始興郡)의 일면일교계획은 금년과 래년으로서 맛치게되여 금년에는 신동보통학교(新東普通學校)를 신설코저 군당국에서는 넉넉지못한 재정을 기우려 소요예산을 세우고 소요자금의 일부를 면민의 부담으로 판출케하야 면당국에서도 오래동안 면민의 열망의 적이되여잇슨 중대한문제인만큼 면장김긔황(金基璜)씨는 유지르상혁(柳商赫)리영섭(李英燮)한대흠(韓大欽)기타제씨와 협의하고 즉시긔성회(期成會)를 조직한후 자금모집에 착수한바 원래오래동안 면민들의숙망하든터이라 긔부금 모집예정액사천원에 비하야 이천원이나초과한륙천여원의 긔부를 조금도힘드리지안코 모아노은후 면의중앙인 서초리(瑞草里)에 긔지약 이천평을 매수하고저 각각지주에게 교섭한결과 일부는 쾌락을어더 벌서매수수속이 끗낫스나 그남어지토지소유자인 시외모전문학교(某專門學校)체조교수현모(玄某)는 겨우 구백칠십오평에지나지못하는땅을 시가 평당 이십오전에 비하야 륙십전이라는 빗싼갑슬 요구하고 완강히 매매교섭을 일축하야 아직까지승낙치안흠으로 이로인하야 금년사월경에 개교될예정의 신설학교가 임이 건축시기를놋치기때문에 부득이 래년으로 천연되여 하로가 새로운 수백명의학령아동들은 속절업시 황금갓흔 세월을 헛되히 보내고잇다하야 일반의 원성이 놉다고한다

# 就學難緩和策으로 三個公普增設計畫

## 學級增設은紅爐點雪格에 當局者도態度一變

【平壤】최근의 평양부는 십개월간에 일만여인의 비례로 인구가 증가하고잇는때문에 그러치안어도 매년 일천오백명이나되는 학령아동이 학교에 입학을 못하는터이엇스므로 압흐로의 입학난은 형언할수업슬지경이다 당국에서는 완화책으로 학급증가를 꿈꾸고잇스나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한수용을 할수업고 보통학교를 압흐로 두곳이나 세곳을 증설할 결의가 업다면 큰곤난을 늣기게될것이다 이때문에 당국에서는 이방면에 류의를하여 학교부지(敷地)를 물색중이나 현하의 상로보아서는 건축열의 왕성으로 평양부내에서는 광대한공지(空地)라고는 구경할수 업을뿐만이라 매수를 하려면 거액의 비용을 요하게되는 관계상 역시큰고통을늣기게 됨에 감하여 적극적 신설보통학교의 긔지를 점령코저 진력중으로 경상리(慶上里)평양전매지국(專賣支局)이 명년에 완전히 서평양역전에 이전하므로 그자리인 약팔천평을양도바듬 교섭을 개시할 모양이라한다

### 本報讀者優待

【杆城】간성읍 녹성사진관(綠星寫眞館)에서는 본보독자를 우대키위하야 이달이십일부터 십일월초닷세날까지 본보독자에한하야 실가로 제공한다하며 그후도계속적으로 특별할인이라는바 독자는 간성지국의 소개서를가지고오기를바란다고한다

### 十七歲少年의 大膽한牛賊逮捕

【咸安】경남군북우시장(郡北牛市場)에서 지난이십일일 오후세시경에 얼굴칠세되여보이는 소년을 군북주재소 최형사가 체포하여 취조한결과 그는본적을 경남산청군금서면특리(山淸郡今西面特里)에둔 조정호(趙正鎬)(一七)로서 일쯕부터 학아일대를 황행하며 농가에서 먹이는 소를 도적질하여 그의생활을계속하여가는 대담무쌍한 소년으로서 이십일일오전세시경에 법수면분외리 김재룡(法守面輪外里金在龍)의 소유시가팔십여원의 소를 도적하여 군북시장인 이십일일을긔회로 그를 매도하라고 온것을 전긔우시장에서 무난히 체포한것이라한다

# 在奉各團體聯合主催 "한글날"記念式

## 奉天西塔幼稚園에서

【奉天】봉천 상부회(奉天相扶會)에서는 오는 이십팔일한글긔렴일을 성대히 긔렴코저 봉천조선청년회(奉天朝鮮靑年會)봉천한글연구회 봉천긔독청년면려회(靑年勉勵會)재봉학우회(在奉學友會)등다섯단체가련합하야로 당지서탑유치원(西塔幼稚園)에서이십팔일밤 일곱시에 한글긔렴식을 거행한다하며 식을마친뒤에는 니어서 축하연이 잇슬터인바 축하회비는 매인 일원오십전이라하며、각단체 대표준비위원들은 만반준비에 분망중인데 삐라 수만매인쇄와 한글선전포스타 수백매를 인쇄배부중이며 「한글날」 수백권을 동아 조선(東亞、朝鮮)량신문사에 의뢰하야 긔증을 바더 당야에 참석자에게 무료로 배부할터인바 벌서부터 전봉천에 인긔가 총집중되여 잇다한다

### 井州邑에火災 草家一棟全燒

【井邑】전북정읍군정주읍장명리(井州邑長明里)로신효(魯信孝)의 집에서 지난이십오일오후여섯시경에 불이나서 결국 오간일동이전소되고 말엇다는바 그발화원인은 어린계집애의 부주의로 인하여 부억에서 일어낫다하며 손해는 약삼백원이라고한다

# 所有權獲得하자 小作權無理剝奪

## 秋收가끗난것을好機會로 新高山某地主의處事

【元山】농업인구의 증가와아울러 토지긔근(土地飢饉)이 격심해진 이때에 소작인의 약점과 무지를 리용하야 인정도 정의도돌으는 악지주들은 함부로작권을 박탈하야 다른사람의게이동하는 사실이 추수긔를 계기로 발생함은 년년히 보든바이어니와 이소작권 박탈사건에 관련된 소작쟁의가 비교적 심각치안튼 함남안변군하(安邊郡下)에서도 발생케되야 세인의 이목을 집중하게 되는바 즉동군 배화면 문봉리(培花面文峰里)와 그 린접동리에 소재한 안변군 신고산(新高山)강모(姜某)(ㄱ)의 소유 오만여평을소작하는 소작인중에서 일어나게되것인데 지금 지주(사음대)소작인간의 감정이 극도로 첨예화하게되엿다고한다

### 奪權宣言直後에 作料를强制打分

#### 新小作人을시켜서

이제 그내용을 알아보면 배화면 문봉리、내원리(內院里)방교리(方橋里)와 수부락에 잇는동군안도면비산리(安道面比山里)김모(金某)(ㄴ)의 소유이든 오만여평을 소작하든 사십여소작인은 전긔김씨에게서 각각 삼년 오년 칠년등의 소작계약을 하고 이래 안심하고 영농하야오던중 지난 륙월경에 김씨가 신고산에잇슨 강모에게 전긔토지를 전부 매도하게되엿슨바 그후강씨는 약일개월전에야 비로소 소작료를 전년도조제(賭租制)로 하든것을 분작제(分作制)로 한다는 선언을 소작인에게 하얏다고한다 이때 각소작인들은 도조제를 주장하고 십호나 소작권박탈이 두려워서신지주의 호감을 사기위하야 일언의 반대도 하지안코 승인하얏다고한다

그후 사음 김모(金某)는 지주의 승락하에 전긔소작인중에서 팔구명이 소작하든 십여일경을 수일전에 뗀다는통지를발하고 신소작인으로하야금 추수의 반작을하야 자긔네집에 운반하게하얏다는데 이에 신구소작인간에 대치가되는동시에 고소사건까지 잇게함에 일으러 금후진전을 일반이 주목하게 되앗다 그런데 전긔 소작권을박탈당한 소작인들은 거개가 빈농으로 그(金)소작권을 떼운다면 사실에잇서 량도(糧道)를 끈는것과 다름업는 처지라고 하며 또 그지대농민은 대개가 벼집(叺)으로 농한기에「가마니」와 색기등을 제조해서 호구하는고로 고초가 여간큰것이 안이므로 박작제로부터 밧는 손실이 적지안타고한다 이러케 손해가 잇슴을불고하고 박작제를 승인한 작인들의심정을 돌올이 업시 도리혀 소작권까지 박탈하므로 일반의비난이 만타고한다

### 崔錫祚氏美擧

【春陽】봉화군춘양면 석현리(奉化郡春陽面石峴里)최석조씨는 초근목피로근근 연명하는 석현리빈민오십여명에게 본년제이긔호세를대납하엿다는데 일반은 씨의후의에칭찬이자자하다고한다

### 오케ー演奏會盛況

【元山】오케ー레코드회사 전속가수 대연주회는 예정한바와가치 지난이십일、이랑일간 백림당악긔점(伯林堂樂器店)주최와、본보원산지국 후원하에、원산관(元山館)에서 매야팔시부터 개연하엿는데、밤마다、립추의여지가업는 대만원의성황을 일우어 람숙찬란한 그들의예술에、도취되엿다 일행은 다시 이십삼일아츰팔시북행차로 함흥에 연주행가을며 낫섯다한다

# 忠共協議會事件 公判又復延期

## —오는三十日로—

【公州】긔보=부여룡정심으로한 충남공산주의자협의회사건의 피의자 리호철(李戶喆)로명우(盧明愚)등 구인에대한 공판은 지난십오일로 십팔일까지 공주지방법원 일호법정에서 소산(小山)재판장의손에 사실심이를 진행중 전긔피의자중 강병국(姜秉國)강성모(姜聖模)강주구(姜周求)등삼인의 칠보회(七寶會)란 비밀결사에 대한사실로 재판장은 증거를 조사하기위하야 공판을 금월이십오일로 연긔하얏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전긔공판를 기다리는피고들의 친족친우들십여명은 부여에서 원로도 불고하고 지난 이십오일아츰에 도착하야 공판개정을 고대하든중 동공판은다시 오는삼십일로 연긔되엿다한다

### 叺繩競技盛況

【安州】지난이십오일 하오일시부터 군농회 주최로 가마니 경기대회가 안주 보교정에서 개최 되엿는데 참가긔수는 약사십여긔로서 최후우승은 안주군신안주면원일리(安州郡新安州面元一里)백을래(白乙來)와 그의처서정학(徐鼎學)으로 부처가 한편이되여 여렷에 우승한것이 한이채라한다

# 釜山第二商業校 學級增設운運動

## 同校學父兄聯合會에서

【釜山】부산부에 잇는 부산제이상업학교(釜山第二商業學校)는 조선사람의 상공도시인 부산이가진 유일한남자 중등학교로서 부내는 물론 경남각지에서 입학하엿고 모허드는 지원자가 매년 오백여명인데 입학허가되는자는 겨우 그이할인백여명에 불과하야 매년 신입학긔에는 시험지옥을 연출함으로도 동교의 학급증가를 절규하고잇다한다 그런데 요지음 부산부내에잇는 륙개보통학교학부형회련합회에서는 전긔 제이상업학교 학급증가에 대하야 중종 협의를거듭하고 지난이십오일에 동련합회대표김재준(金在俊)리병하(李炳夏)전영호(田暎昊)김용근(金容瑾)조진옥(趙辰玉)림상식(林相植)리상원(李祥源)등칠씨가 경상남도지사를 방문하야 동교학급증가의 필요를 력설하고명년도에 실현하야 달나는진정을 하얏다한다 그런데 도당국의태도를 보아 또다시제이단의대책을 강구를 준비중이라한다

# 商品廣告와 心理學의關係

## ③ 鄭大業

### 想像力과其應用

想像에는 極히 明確한것도잇고 極히 不明瞭한것도잇다 우리의 想像을 形造하는 能力도 똑가지안코 各己相異하다 現實로 經驗한 當時의 感覺과 別로틀님업는 明確한 想像을 形造할수잇는 사람도잇고 또는 想像의 힘이 極히 朦朧한 사람도잇는것이다 社會에서 階級을 달리하는데 따라서 各階級의思考도 달러지는것이니 엇더한階級에서는 非常히 歡迎하는것이 他의 階級에서는 一顧도 하지안는일이잇다 또 各個人의 年齡職業及境遇慣習을 달리하는데 따라서 各各事物에 對한 思考도 相違하야 지는것이며 行動에對한 動機도 달러진다 따라서 廣告人이 廣告하는데도 如斯한 條件을 考慮하지안흐면失敗를 보는수가만타 卽엇더한物件을 엇더한사람에게 動할際그들에 對한여러가지 條件을研究하야보지안흐면 아니된다 먼저 廣告人은 미리公衆에게엇더種類의 想像을 이르키게해야조흘가를 調査하지안흐면 아니된다一般이 意識하는 特殊의것을 만드러될수잇는대로 만흔想像力에 訴할 廣告를 作成해야할것이다 그럼으로廣告를 作成하려면 먼저自己의 想像力을 試驗하야볼 必要가 잇다。萬若自己의 視覺으로 想像을 描할 能力이 업슬것가트면 따라서 다른사람의 視覺에 訴하는 廣告도 作成할 能力이업다 또味覺의 想像力이 缺하다면 食料의 廣告를 堂能力이업다고할수잇다 그러나 想像力이라는것은 後天的으로 獲得할수잇는것이니 廣告人은恒常 深深한 注意를하야 十二分의努力을하야 有終의 美를 擧하도록 하지안흐면 아니된다。

### A 訴求

訴求라함은 自己의 意思와慾求를 말하야 그와가티 相對를 行動케하려는 意思表示이다 換言하면 廣告를通하야 讀者의心理要素를 一定한 目的으로써刺戟케하야 讀者를 目的한대로應答케하려는 要求이다

訴求에는(一)臨時訴求 (二)連續性純正訴求 (三)連續性臨時訴求가잇다

(一) 臨時訴求

通知、公示、移轉、開店、賣出等의 一時的의것이다。

(二) 連續性純正訴求

一個의 商品을 向上케하기爲한 連續的의것이다

(三) 連續性臨時訴求

一定한 期間을 定하야 特히 써ー비스賣出、懸賞賣出、催物賣出等의것이다。

訴求의 表現方法은 物理的과 心理的으로 分할수잇다。

第一의 物理的表現方法이라함은 廣告를 보는 사람의 心的作用의 有無如何를 不拘하고 單純히 視覺 또는 聽覺等에 訴하야 注意를 끌을게 하는 方法이고 第二의 心理的 表現方法이라함은 廣告를 보는 사람의 感情 또는 情操에 興味를 이르키게하는 方法으로 說伏的表現 又는 暗示的表現等에 依하는것이다。이것의 表現方法으로 左의 條項에 비취어 봄이可하다。

一、顧客의、購買慣習을 顯考할것 顧客은 엇던時에 商品을相當히 考慮한後 사는것인가 또는 衝動的으로 사는가 그購買過程을 心理的實驗的으로 思考할 必要가잇다。

二、顧客의 購買度數를 顯考할일이니 그 商品에 購買習慣이 잇서서 가끔 사러오는것인가 드물게 사는때도 잇는것인가 季節的인가 週期的인가의購買度數의 程度를 생각하야둘必要가잇다。

三、顧客의 商品에 對한 親密程度를 생각할것 商品에 親密感이 잇나 업나 그 程度를 思考할 必要가잇다。

四、商品의 價格이 싸가 빗싸가를 생각할것 普通의 時勢觀念으로보아 比較的싸가 顧客에게 알마진 價格인가 그만 同種品에 比하야 빗싸면 그만큼 高級觀念을 伴할가 어떤가를 思考할 必要가잇다。

五、同種品 又는 類似品의販賣狀態를 생각할것 此等商品이 如何한 方法으로 팔리는가를觀察하야서 萬若 그 商品의賣行이 相當히 旺盛할때에는 說伏的方法에 依하는것이 得策일가 어떤가를 思考할일이다。

六、同業者의 廣告를 觀察할일이니 同業者가 實行하고잇는 訴求方法에 追隨할가 또는 創造的方法에 依할것인가를 생각할 必要가잇다。

七、商品의 內容 及 品質이 複雜한가 單純한가를 생각할것 機械 又는 發明品과가튼 複雜 又는 未知의것은 說伏的理論的의 方法이조코 化粧品、食料品가튼것은 暗示法이 比較的조흘가를 생각할必要가잇다。

八、消費者의 階級을 생각할것 商品을 購買하야 消費하는 사람들의 敎育的社會的 階級을 생각하야 普通의 商品은 通俗的方法으로 表現하고 消費者가 比較的 限定되야서 敎育的으로 보아 高級의것이면 訴求도 亦是 相當히 高踏的으로 하는것이 有利한가 어떤가를 생각할것이다。

九、商品에 對한 顧客의 感情을 有利히 釀成할것 商品은 實質이나 必要만으로 팔리는것이아니다 商品에 對하야 顧客이 好感을 保持하도록 하지안흐면아니된다。

一〇、廣告의 目的을 생각할것 直接販賣를 增進하려는 廣告는 說伏的表現이조코 單純히 商品名店名을 記憶케하야 家際을 놉히려는 廣告는 暗示的表現 又는 物理的表現이 有利한가를 생각할일이다 (繼續)

---

**奉天**

# 한글날記念式

▲時日 十月二十八日(月)

▲場所 奉天西塔幼稚園

◇主催 相扶會、奉天朝鮮靑年會、奉天한글研究會、奉天基督靑年勉勵會、在奉學友會

◇後援 朝鮮日報社奉天支局

**新浦**

# 手藝、染色講習會

▲時日 自十月二十七日至同三十日

▲場所 新浦舊普校舍

◇主催 朝鮮日報社新浦支局

**大浦**

# 東草市民大運動會

△時日 十一月三日부터(五日間)

△場所 東草港公設運動場

◇主催 東草繁榮會

◇後援 朝鮮日報社大浦支局

**清州**

# 少年少女懸賞 童話童謠大會

(入場無料)

▲時日 十月二十九日 午後七時

▲場所 清州金融組合樓上

◇主催 朝鮮日報社清州支局

---

(211) 火賊 **林巨正**

洪碧初 作 安碩柱 畵

청석골 五의二二

꺽정이가 해거를 부리기시작하자 백손어머니 입에서 벼락이 마혓든 터진것가티 쏘다저나왓다

「오냐 어듸 해보자 네가 나를 죽이기밧게 더하겟느냐 내가 네손에서 죽지안흐면 내손으로 자결해서라도 죽지뭣방에서 천덕구레기노릇하고살지안는다 철도 안여겟다든놈이 본기집이란게 자그마치 셋식이야 본기집 명색이 한꺼번에 셋식냇식되는법이 어듸잇드냐 이놈아 지금은 부모거상을 삼년입은 세상인데 너혼자 녯날 법이라고 스무날헤 입고 시지부지 고만두더니 상제복색 입고 기집질하기 거북해서 미리 고만두엇구나 내 머리에 흰당기는너 아버지 거상이다 흰당기드린 머리를 끄들르는것이 죽은부모 대접이냐」

꺽정이가 백손어머니를 머리채 잡아서 치켜들고 내둘르다가 흰당기 내세울때 손을 노하서 백손어머니는 방바닥에나동그라젓다 백손어머니가 다시 일어나며 곳 꺽정이게로 발악발악 달겨들어서 꺽정이는 치고 차고 백손어머니는 물고뜻고 쌈을 하는데 건느방에 잇든 사람들이 우 건너와서 리봉학이 박유복이 한온이 세사람이 꺽정이의 아플 둘러막고백손이가 저의 어머니 아플 가로 막아서 쌈을 떼어노핫다꺽정이도 몸에 몃군데 상채기가 낫지마는 백손어머니는 그동안에 발서 참혹하게 당하얏다 콧중한 손에 이마가 터저서 면상이 피투성이가 되고 센 발낄에 압정강이가 불어저서 다리한짝이 병신이되엇다

불어진 뼈를 드리마친다 산풀을 갈어서 먹인다 버드나무조각을 압뒤로 대고 버들껍질로 동여맨다 찬찬한 리봉학 이와 진중한 박유복이까지 황당스럽게 구는 백손이나 한온이만못지안케 수선들을 부리는중에 바깟방에 나가잇는 상노아이들이 들어온것은 말할것도업고 대소가의 안팍심부름군이 만히몰려와서 마루에도 사람이요 마당에도 사람이엇다 아랫간에 가서 가만히 안저잇든 꺽정이가 홀제 말업시 일어서서 밖그로 나가는데 백손어머니가 쪼차가 봇들랴고 안진채로 날뛰면서

「이놈아 사람을 이지경 매선을 맨들어노코 어데로 도망가느냐 네가 오늘밤에 죽든지 사든지 낭단간 끗을 내자 도망갈 생각말고 이리 들어오너라」

하고 악을 드리썻다 꺽정이가 문밧게서

「저년이 참말 미첫지 섬학구야 저멀리가 엇나」

혼자말로 말하고 건느방으로 들어갓다 꺽정이는 롱소밥안이나 남소미로로 갈까하고 일어서 나온것인데 도망침 치단소리를 듯고 가기도 창피하고 그러라고 이리 들어오라다고 들어 들어가기도 창피하야 건느방으로 들어가 버린것이엇다 백손어머니가 꺽정이를 노칠까 겁이나서 곳 건느방에 쪼차갈 작정으로 동인다리를 드듸고 일어서라고하니 리봉학이가 잠간만 참으라고 말린뒤에 백손이를 시켜서 물추긴 수건으로 면상의 피를 씨서주게하고 기름에 개어온 밀다승을 이마상처에 발려주게하고 머리까지 거두어드리라고 일른데 백손어머니가 자긔손으로 허드러진머리를 거둥거둥 거더서 모양업시 둘어언지며 백손이더러

「나를좀 붓들고 건느방까지 가자」

하고 말하얏다

「그만하면 아버지 맘을 다 알엇는데 또 쪼처가서 무어하우 섬한 다리하나 마저 불어르라구십소」

백손이입에서 곱살궂지 안흔 대답이 나와서 백손어머니가 매서운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며

「고만 뒤라」

하고 한다리를 뻐든채 안질뱅이 걸음을 처서 압흐로 나가다가 다리가 문찌방에 다다드려서 니를 악물고 아픈것을 참고 갑작이 문설주를 붓들고 혼자 일어섯다 박유복이가 백손이더러 붓들어드리라고 말하야 백손이가마지못해 와서 부축하랴고하는것을 백손어머니는 매몰스럽게 뿌리치고 외짝다리로 깨끙을 뛰어서 안방에서건느방으로 건너갓다 리봉학이와 박유복이는 쓰이밧슴을 다시면서 바로 뒤를 딸하가고 백손이는 눈물이 나는것을 주먹쥐인 손등으로 이리씻고 저리씻고하다 뒤떨어저서 쪼차가고한온이는 마루우와 마당아래 여러 사람을 꾸지저 내쫏느라고 한동안 마루에서 지체 하얏다